

글. 성우제_ Sung, Woojae

OMA NYC office / Senior Architect

파라메트릭 디자인

parametric design

■ Parametric Design의 동향

최근 미국건축의 동향에서 아마도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parametric technology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 내 대다수의 탑 스쿨을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parametric technology를 사용한 design/fabrication 수업이 인기리에 진행되어 온지도 이미 십년이 넘는 듯하다. 리서치를 통해 재료의 물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computational model로 재해석하여 mass customization의 과정을 통해 구축적인 모형으로 재생산해 내는 이러한 design/fabrication라는 좁은 범위의 건축적 적용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많은 수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이러한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반적인 건축의 과정에 도입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한 예로 필자가 이번 학기 객원 강사와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한 디자인 스튜디오는 공해물질을 정화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리서치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의 환경적인 변수들을 추출하여 이를 parametric modeling을 통해 건축화 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적인 차원에 더해 Smart Geometry, Tex Fab 등의 사설 기관들이 유수의 building technology 기업체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 학생과 프로페셔널들을 상대로 하여 일련의 parametric design workshop을 개최하여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흐름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 Parametric Design에 대한 오해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론의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Parametric Design이란 것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은 아니다. Digital Design과 혼용되기도 하고 하위 혹은 동위의 Computational Design과 구분 없이 사용되며 때로는 BIM과 혼동되기도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큰 맥락에서 보았을 때 Parametric Design은 Digital Design의 하위개념쯤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Digital이라는 단어는 analogue의 상반된 개념으로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 될뿐더러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비구축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가장 구축적인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Parametric Design을 설명하는 단어로서는 가장 사용되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Computational Design은 컴퓨터 툴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구축적인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Parametric Design을 설명하는 단어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Parametric Design이 가지고 있는 긴 역사를 생각해 보았을 때 Parametric Design의 현대사의 일부만을 설명할 뿐이다.

■ Parametric Design의 발생

인간의 구축적인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산업혁명과 이를 통한 대



현재 OMA 뉴욕 오피스에서 Senior Architect으로 근무 중이며 SHoP Architects 및 Grimshaw Architects 뉴욕 오피스에서 Senior Associate 및 Leader of Computational Design Unit으로 근무하였다. 2009년부터 Harvard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및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Parametric Design을 가르치고 있다. 별도로 www.wojsung.com 및 www.selective-amplification.net 을 운영하며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건축적인 적용을 실험하고 있다.



1



2

1) fig.1 – Barclays Center, Brooklyn, NY. Image courtesy @ Architectural Record
http://archrecord.construction.com/projects/building_types_study/stadiums/2012/images/Barclays-Center-SHoP-main.jpg
 fig.2 – Weathering panel mass-customization factory. Image courtesy @ SHoP Architects
<http://www.shopdoes.com/wp-content/uploads/2011/06/Panels.jpg>
 2) fig.3 – URBAN GENETICS IN SAINT DENIS / EDUARDO ARROYO. Image courtesy @ ElCroquis

3



량 생산의 시기임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건축 재료들이 규격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의 설계 및 시공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곧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의 생산에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폐해와 이에 대한 반기는 마르셀 뒤샹의 샘 혹은 엔디 워홀의 일련의 작업들로 표현되기에 이른다.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리고 다시 최근의 Mass-customization의 단계로 접어드는 일련의 변화는 마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parameter가 존재했던 생산라인에 몇 개의 parameter가 더해지고 급기야는 몇 십 몇 만 가지의 parameter가 추가되어 수를 셀 수 없는 서로 닮은 그러나 서로 다른 제품들을 생산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¹⁾. 기술적인 진보가 없었다면 결코 생산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했을 이러한 과정 뒤에 숨어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parameter의 존재이다. 즉 인간이 어떤 제품의 규격화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처음에는 상수로 정의 되던 규격이라는 것이 기술의 진보 및 시대의 요구를 통해 변수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변수를 통해 사용자와 제품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바로 parametric design의 산 역사가 되는 것이다.

■ parametric design의 진행방향

비단 제품 생산의 mass-customization의 예 외에도 parametric design은 건축사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해성처럼 나타난 존재는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parametric design의 개념은 우리가 computational design tool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이전부터 항상 건축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npeg Chart는 주어진 대지의 위치를 parameter로 삼아 지어질 건축물의 일조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고안되었으며, 이는 Ecotect, Vasari, 혹은 Rhino/Grasshopper의 Ladybug나 Geco등의 parameter 기반의 분석툴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 역할을 해왔다. no.mad의 Eduardo Arroyo의 일련의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건물의 구성하는 prototype들을 정의하고 각 prototype들이 가지는 parameter들이 대지의 환경적인 요소들 혹은 그 type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conflict등을 통해 변이하고 이를 통해 전체 건물이 형상을 갖추어 가는 과정은 분명 parametric design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기상으로 짐작하였을 때 parametric tool의 발생 이전임이 명확하다²⁾.

만약 parametric design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 아주 초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parametric tool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져오는 장점은 단순히 많은 parameter를 수작업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복잡함과 번잡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와 변수들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으며 무수한 feedback을 통해 다양한 의미에서 검증된 최적화된 설계안을 짧은 시간에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이유와 당위성을 요구받는 현대사회에서 parametric design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더불어 parameter라는 것이 건축이 항상 중성적이고 정적임을 강요당하지 않고 사용자와 기능 그리고 대지의 환경적인 요소를 엮어 물리화 시켜주는 중요한 interface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parametric design의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글. 이지현_ Lee, Ji-hyun

HOK(Hellmuth, Obata and Kassbaum) in Hongkong

지속가능한 산업용 건축물의 재사용

Adaptive Reuse / Conversion of Old industrial Building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이 기존의 건물들이 목적을 바꾸어 새롭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것은 특히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왔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

이번호에 소개할 두 작품은 오래된 산업용 건물을 최소한의 작업으로 마감하여 완성시키거나 필요에 따라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예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건물들이다. 공업/산업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기능적 특성상 공간적으로 가변성과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시 공간으로 재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의 유명한 예로써 런던의 Tate Modern Museum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건축사 Herzog & De Meuron은 기존의 전기 발전소였던 건물을 훌륭한 예술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그 도시의 기억을 새롭게 썼다.

■ Long Museum West Bund, Shanghai

첫번째로 소개할 건물은 2014년도에 Atelier Deshaus에 의해서 디자인된 Long Museum West Bund이다. Atelier Deshaus는 상해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LIU Yichun, ZHUANG Shen, CHEN Yifeng가 이끄는 젊은 중국의 건축사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현대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현실성, 장소성, 기술성을 개인적인 Poetry로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Long Museum West Bund는 상해의 Xuhui 지구, Huangpu강의 제방에 위치한다. 이곳은 1950년대에 석탄 수송을 위한 부두였다.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 건물이 위치할 사이트에는 지어진 폭 110m, 길이 10m, 높이 8m의 거대한 지하 주차장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이것을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대신에 이곳의 산업적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원래 이 거대한 지하주차장의 골격구조와 몇몇 지상의 잔부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건물이 통합되는 방식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은, 한편으로 기존의 전단벽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으로 구조 자체이면서 공간구성이 가능한 구조 유닛unit을 구상하였다. 이는 바로 Vault-Umbrella 구조 유닛(이를 번역하면 우산모양처럼 생긴 둥근 천장 구조가 될 것이다)으로서 기둥이자 벽이자 천장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일체를 이루며 비교적 자유로운 전시 공간배치를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 및 기계 설비 시설 등은 이 우산 모양의 볼트 유닛에 완벽하게 통합되었으며, 마치 레고를 조립시키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의 구조위에 오버랩되며, 수평·수직 방향의 격자무늬를 따라 배열되었다. 지하층의 주차장은 "화이트 박스" 전시 공간이 되고, 지상층은 Vault-Umbrella 구조유닛에 의한 투명한



Long Museum

게 “흐르는” 전시 공간이 된다.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은 하향 나선형 사다리를 통해 연결된다. 구조 유닛은 전체적으로 매끈한 매스를 강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계선도 볼 수 없이 콘크리트 캐스트로 마감하였다. 벽에서 점차 천장이 되고 그 천장의 끝에는 자연광이 공간으로 스며든다. 어찌 보면 이 구조가 가지는 형태적 간단함이 아주 원시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시대감을 그대로 직시하게 한다. 콘크리트 재료가 주는 거칠고 완성되지 않은 산업성은 그에 관련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만, 공간적으로는 일관되게 되풀이 되는 구조 유닛의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가지고 있어 모순적이면서도 오묘한, 무거우면서도 투명한 공간을 자아내고 있다.

■ Power Station of Art, Shanghai

두번째로 소개할 건물은 상해의 엑스포 사이트와 가까이 위치에 있는 Power Station of Art-예술의 발전소-이다. 이 건물은 상해의 Original Design Studio에서 진행하였으며, 1985년에 지어진 “Nanshi 발전소”를 더 이상 전기발전소가 아닌 “예술의 발전소”로 탈바꿈 시킨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발전소의 산업적 임무가 중단됨에 따라서 거대한 전기생산 기계를 드러내고 6년에 걸쳐 문화와 예술을 촉진하는 기계로의 변형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산업적으로 쓰여졌던 만큼 거대한 면적을 이용하여 이 공간은 현대미술 전시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예술, 여가 활동들을 도시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도시와 대응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굴뚝을 보며 이 건물에 접근하다보면 열린 광장이 보이고 이 건물을 들어서자마자 전체높이에 달하는 입구 홀의 전시 공간에 이른다. 철강구조와 메탈 플레이트로 마감된 많은 부분들이 전시공간의 곳곳마다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부분적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산업적 분위기의 특성과 현대예술의 장이 한층 직접적으로 오버랩되어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방문자가 전시공간의 구성 원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산업적 건물이었던 만큼 넓고 신축성 있는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유롭게 다양하게 열려있는 전시공간 방식을 취하였다. 건물 지붕은 오픈 데크로 열려둠으로써 강을 둘러싼 상해의 엑스포를 포함한 도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wer station of Art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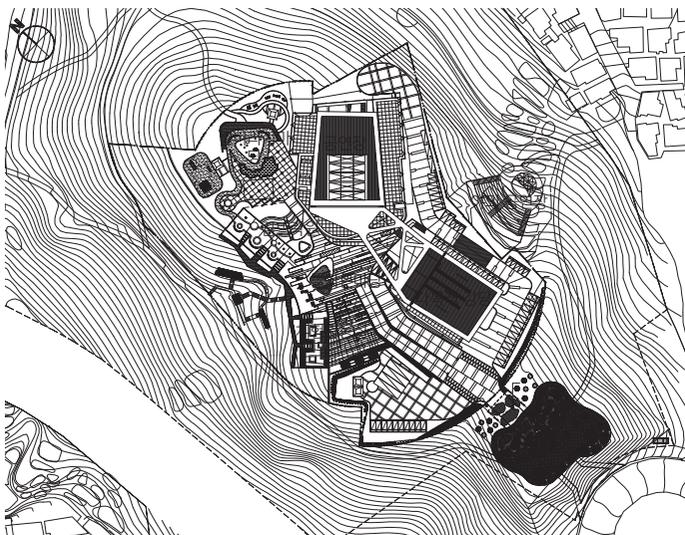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설계자 | 은동신_KIRA |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건축디자인 경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성남판교 어린이도서관(2014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 에듀타운 학교복합화시설(2013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2013부산다운 건축상) 등이 있다.



설계자 | 조현석_KIRA | (주)아이엔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동래구 국민체육센터(2012), 부산과학체험관(2013), 경상대학교 국제문화회관(2014) 등의 현상설계 당선작이 있다.



배치도





건축주 | 부산광역시교육감
감리자 | 한국종합건축
시공사 | 한동건설(주)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37-1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7,086㎡

건축면적(Building Area) | 3,252.16㎡

연면적(Gross Floor Area) | 10,808.4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03%

용적률(Floor Area Ratio) | 28.65%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트러스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고밀도 목재패널, 노출콘트리트
- 내부 : 화강석 물갈기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04 ~ 2010.08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01 ~ 2013.09

- 설계팀 : 김제형, 신승호, 김영문, 이정환, 오현영(이가),
우성호, 최용문, 김창희, 남영규(아이엔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청우구조안전기술
 - 토목분야 : (주)경보기술단
 - 기계설비분야 : (주)세진이앤이
 - 전기분야 : (주)에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 조경분야 : 시원디엔씨
 - 무대분야 : 세월에스디에스(SDS)(주)

Client : Busan Superintendent

Architect : Eun, Dong Shin

Project Team : EGA Architecture Co., Ltd.

+ ING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es

Location : 737-1, Nakdongbuk-ro, Buk-gu, Busan, Korea

Structure : RC, Steel Truss

Structural Engineer : CheongWoo Structure Engineers Co., Ltd.

Civil Engineer : KYOUNGBO Engineering Co., Ltd.

Mechanical Engineer : Sejin ENE Co., Ltd

Electrical Engineer : YEDA engineering development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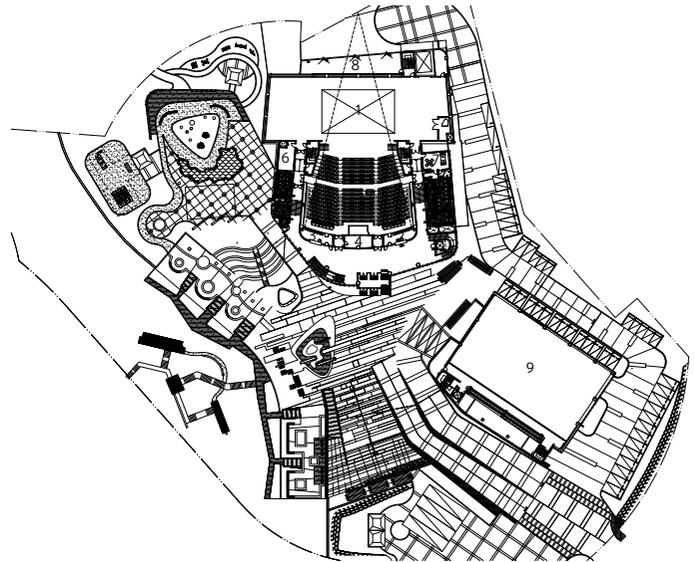
Landscape Design : Shiwon ENC

Stage Engineering : SEWON SDS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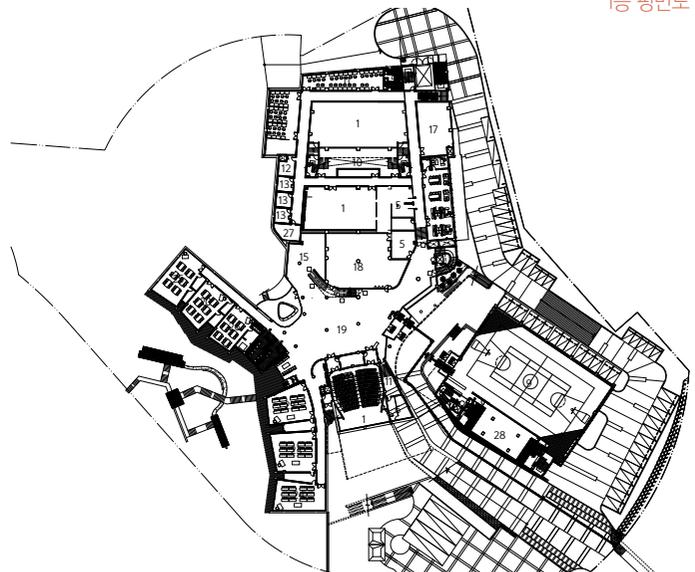
Finishing

Exterior : NT Panel, exposed mass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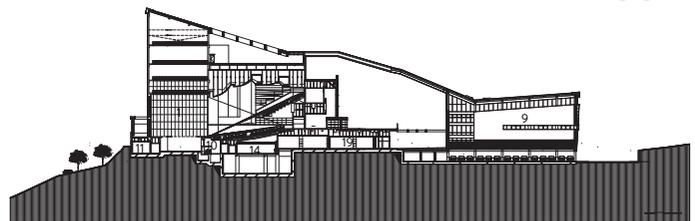
Interior : Polished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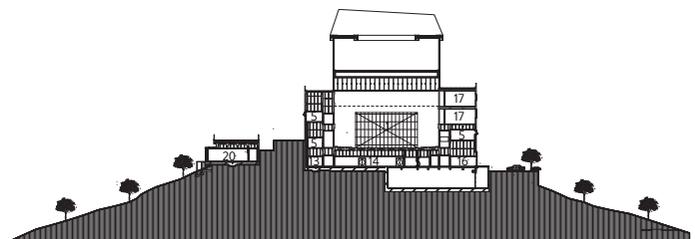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 | | | | |
|--------------|----------------|--------------|----------|
| 1 _ 무대 | 8 _ 공연자 휴게공간 | 15 _ 북카페(매점) | 22 _ 관악실 |
| 2 _ 매표소 / 안내 | 9 _ 다목적 강당 | 16 _ 관리사무실 | 23 _ 기악실 |
| 3 _ 물품보관실 | 10 _ 오케스트라 PIT | 17 _ 공조실 | 24 _ 현악실 |
| 4 _ 조정실 | 11 _ 분장실 | 18 _ 전시실 | 25 _ 공예실 |
| 5 _ 화장실 | 12 _ 지휘자실 | 19 _ 중앙홀 | 26 _ 도예실 |
| 6 _ 출연자 대기실 | 13 _ 개인연습실 | 20 _ 회화실 | 27 _ 의상실 |
| 7 _ VIP룸 | 14 _ 대연습실 | 21 _ 소강당 | 28 _ 헬스장 |



1_ 대공연장 2_ 서측 체험활동실 3_ 중앙 마당

CONCEPT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는 부산의 상징성과 청소년의 꿈이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부산의 지역성을 담고 있는 갈매기의 형상을 디자인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산다운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며, 청소년과 지역민들이 문화를 즐기며 자연과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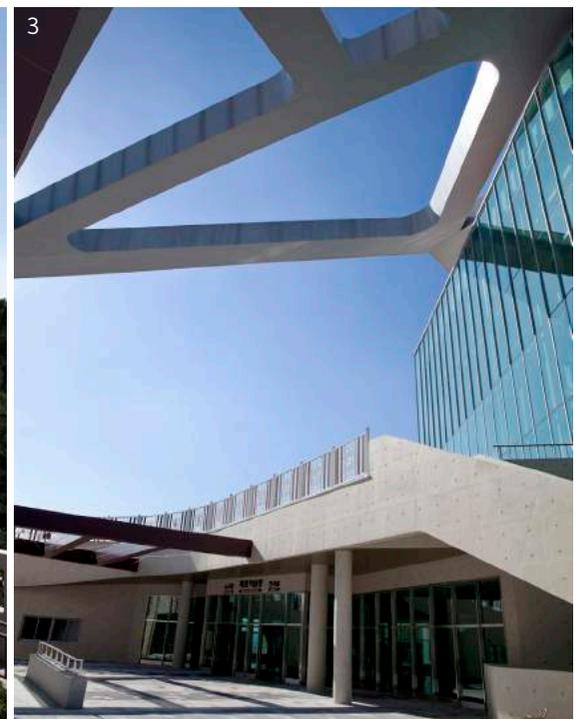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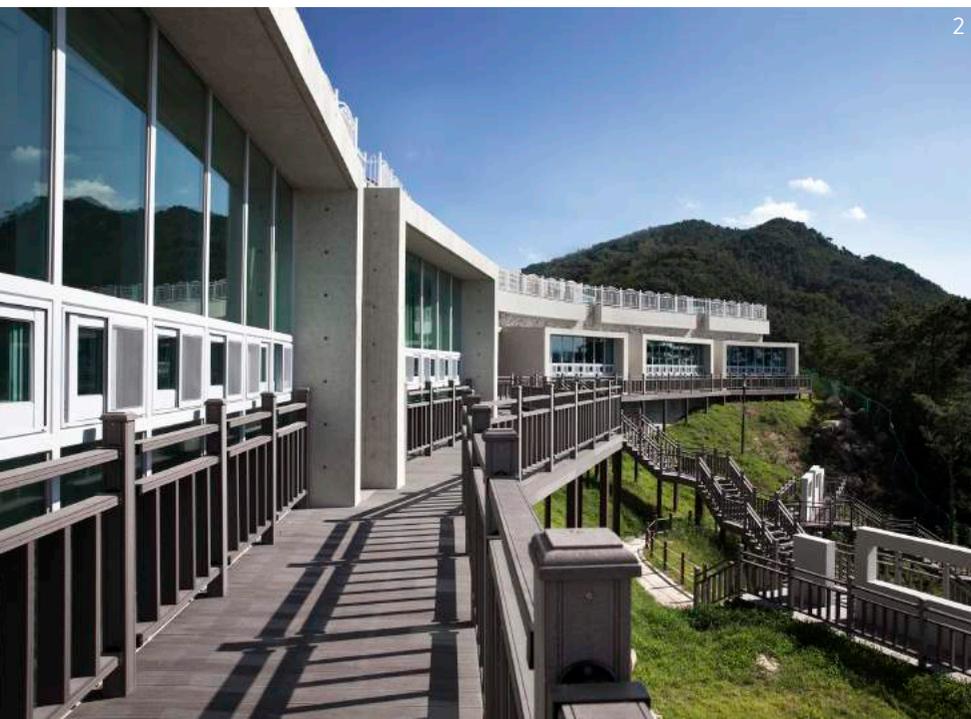
지형의 순응하는 배치를 통하여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였으며, 낙동강 및 금정산으로 열린 통경 축을 확보하였다. 주변의 자연과 공원이 연계되는 친환경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보행자를 고려한 다양한 진입과 충분한 광장 및 외부공간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를 마련했다.

시설의 집중화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였고 진입도로를 통해 중앙홀로 동선을 유도시켜 각 시설로의 이용 동선을 단축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보행 동선과 분리된 하역 동선을 계획하고, 명쾌한 순환동선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과 안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했다. 대공연장 및 체육관의 다목적 사용과 확장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였으며, 유사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를 통해서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명확한 영역 구분과 공간 연계는 학생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자연이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쉼터와 연계된 북카페를 통해서 학생들의 휴식과 독서공간을 확보했다. 낙동강을 향해 튀어나온 매스들은 학생들의 체험 활동실로서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HOPE

부산도시가 내려다보이고 낙동강이 펼쳐진 이곳. 구포, 문화의 숲에서 청소년들의 꿈이 희망의 나라를 펼칠길 바란다.







3



4

1_ 서측 전경 2_ 동측 조감도 3_ 보행 진입로 4_ 서측 진입 마당

아진산업주식회사 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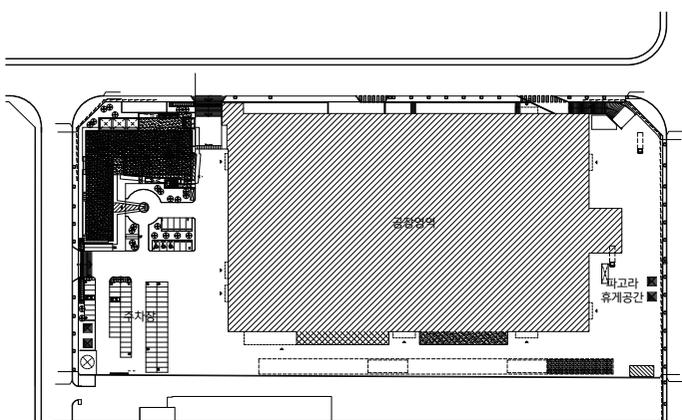
AJIN Industrial CO., LTD
NEW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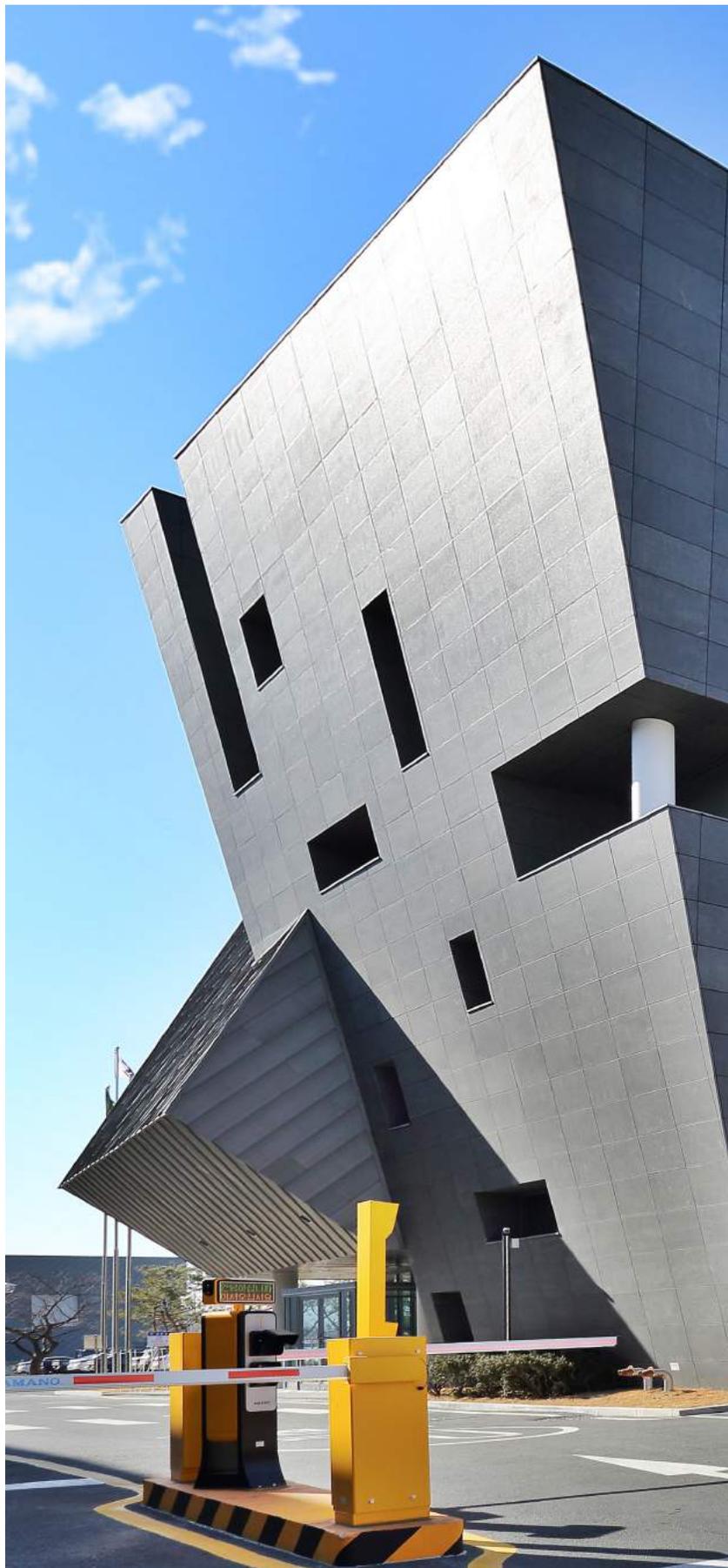
설계자 | 유영재_KIRA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영진전문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대구시 건축사회 법규위원, 정보위원을 역임하고, 대구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핵심요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대표작으로는 SI Auto motive(2013 대구건축대전 건축작가상),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 롯데캐논 안산공장, 롯데캐논 공동생활관 등이 있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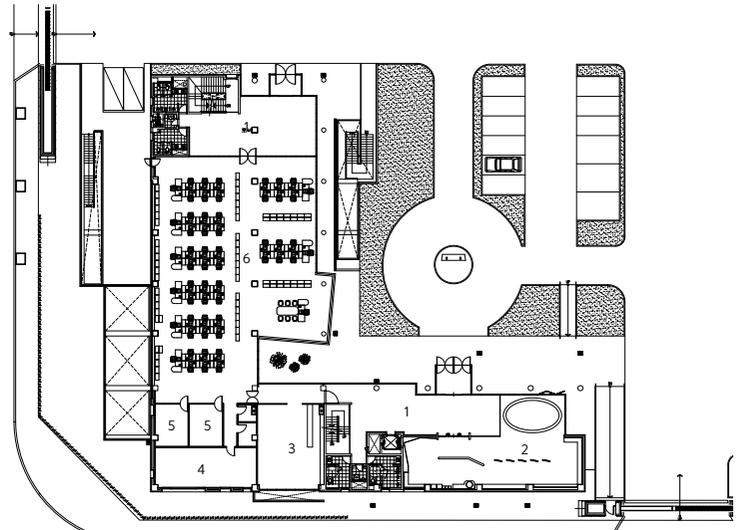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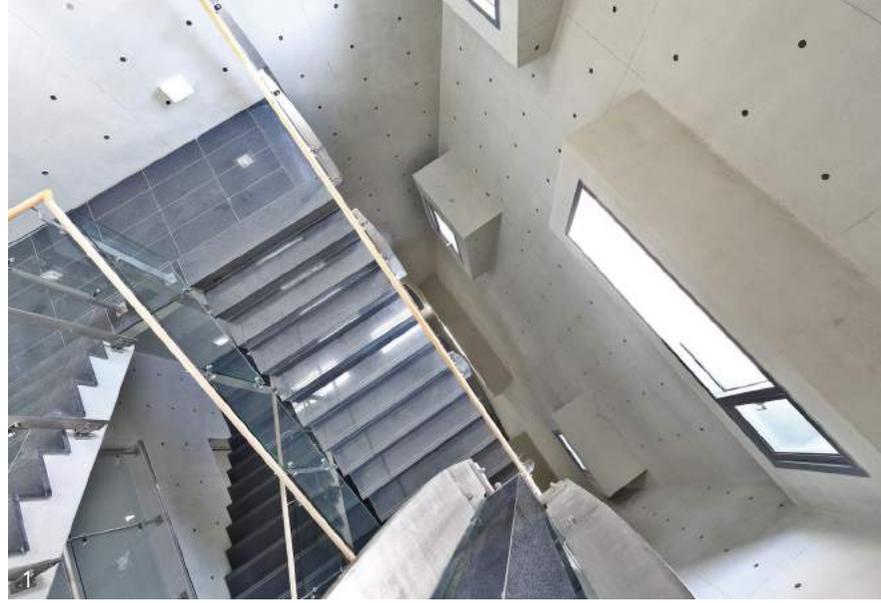


건축주 | ㈜아진산업
감리자 | 신한남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현암 종합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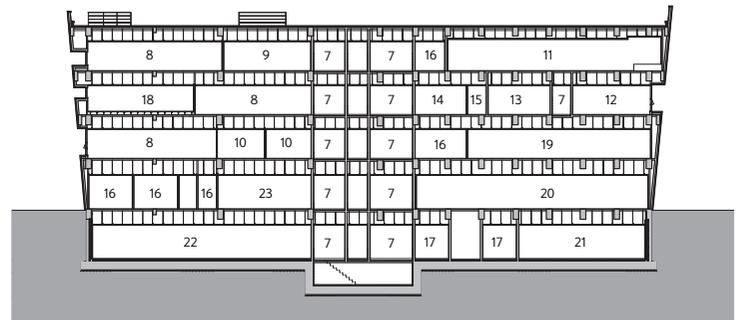
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31
주요용도 | 공장(업무동)
대지면적(Site Area) | 33,136.5㎡
건축면적(Building Area) | 19,421.24㎡ (1,615.47㎡-업무동)
연면적(Gross Floor Area) | 24,920.78㎡ (6,758.2㎡-업무동)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8.61%
용적률(Floor Area Ratio) | 69.8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업무동)+철골조(공장동)
주요마감재 |
- 외부 : 마천석버너구이, T=0.75 Zinc, T=24 투명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방부목 데크, F.B난간
- 내부 : T=300고흥석 물갈기, T=20현무암, 노출콘크리트, V.P
MDF위 방염필름, 타공형 흡음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3.20. ~ 2012.5.2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9.12. ~ 2013.09.10.
사진(Photographer) | 이원은(Lee, Won-en)

- 설계팀 : 이홍엽, 원혜연, 이중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제원E&C
 - 기계설비분야 : 서진설비설계사무소
 - 전기분야 : 우진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우진엔지니어링
 - 유틸리티 : 서진설비설계사무소

Client : AJIN Industrial CO., LTD
Architect : You, Young Jae
Project Team : Lee, Hong Youb / Won, Hye Yeon / Lee, Jung Hwan
Location : 531, Sinje-ri,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Structure : Factory-iron frame / office-Reinforced Concret Structures
Structural Engineer : Jeawom E&C
HVAC Engineer : Sujin Equipment design Office
Electrical Engineer : Woojin Engineering Co., Ltd.
Fire Engineer : Woojin Engineering Co., Ltd.
Utilities : Sujin Equipment design Office
Finishing
Exterior : Macheon stones burner firing, T=0.75 Zinc panels,
Transparent insulating glass, Exposed concrete,
Treated wood deck
Interior : T=300 Stone finishes, T=20 Basalt finishes,
Exposed concrete, 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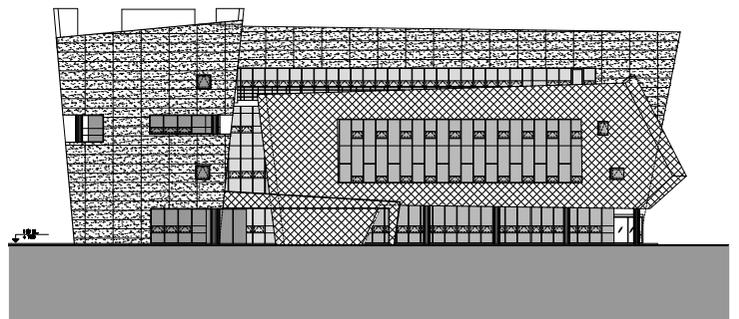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 | | | | |
|------------|---------|----------|------------|
| 1_ 로비 | 7_ 화장실 | 13_ 다목적실 | 19_ 예비실 |
| 2_ 전사실 | 8_ 사무실 | 14_ 대기실 | 20_ 전사실 |
| 3_ 접견실 | 9_ 대회의실 | 15_ 탕비실 | 21_ 체력단력실 |
| 4_ 중회의실 | 10_ 회의실 | 16_ 창고 | 22_ 식당(강당) |
| 5_ 소회의실 | 11_ 교육실 | 17_ 탈의실 | 23_ 휴게실 |
| 6_ 사무실(공자) | 12_ 사장실 | 18_ 전산실 | |



남측면도



1_계단실 2_전사실 3_교육실 4_사장실

아진산업의 신사옥 디자인을 결정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은, '회사가 현재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강한 믿음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표출해 줄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상승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형태와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표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었고, 회사의 특성 즉 자동차부품회사로서의 역동적 이미지를 건물의 형태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또한, 본사의 사옥으로서 사용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많은 고민과 디자인 회의 끝에, 마치 들판을 달려가는 코뿔소의 빠르고 강인함이 가득 담긴 역동적인 모습을 디자인 concept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자동차부품회사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건물에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외부형태가 주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수직선과 수평선이 일정한 형태 즉 박스형태의 정형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에 다양한 각도의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되어 사용되어지고, 강한 상승감을 주면서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한 시도들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모습과 같은 형태가 디자인 되었다. 다양한 방향의 선들이 건물에 사용되었지만 혼란스럽지 않도록 절제된 모습으로 창문들을 설치하였고, 또한 외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의 벽체이지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각도를 찾기 위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탄탄한 구조감과 비례감이 조화된 형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그 결과 건물의 북측입구에 서서 보면 지칠 줄 모르고 들판을 강하게 달려 나가는 코뿔소

와도 같이, 질주본능의 이미지가 형태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쪽면에서 보면 속도감 있게 질주하는 자동차의 이미지도 보여지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 건축물의 외부에 사용된 주 재료는 마천석판이며 부 재료는 징크판넬이다. 마천석은 버너구이를 함으로 무광을 유지하였다. 무채색톤으로서 자연석이 주는 시각적 편안함은, 강한상승감을 추구한 건물외관의 형태로 인해 사용자가 느낄지도 모르는 시각적 피곤함을 상쇄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티타늄이 첨가된 징크판의 소재가 주는 하이테크적 이미지는 첨단 자동차부품회사로서의 기업이미지와 잘 조화가 될 것이다.

이 건물의 내부계단은 노출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였고 계단 상부에서 하부까지 트여져 있는 구조로서 계단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연소재가 주는 편안함과 아울러 개방감을 느끼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입구바닥과 실내의 로비 부분 및 선큰벽체 등에는 유공판 형태의 현무암을 적절히 사용하여, 외부의 디자인적인 질감과 편안한 느낌이 실내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사무실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넓은 데크를 평면적으로 배치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적인 측면에 여유로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다음 세대에까지 존속하는 장수하는 기업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는 아진산업의 기업정신처럼 이 건물도 다음세대까지 사람들이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고 잘 사용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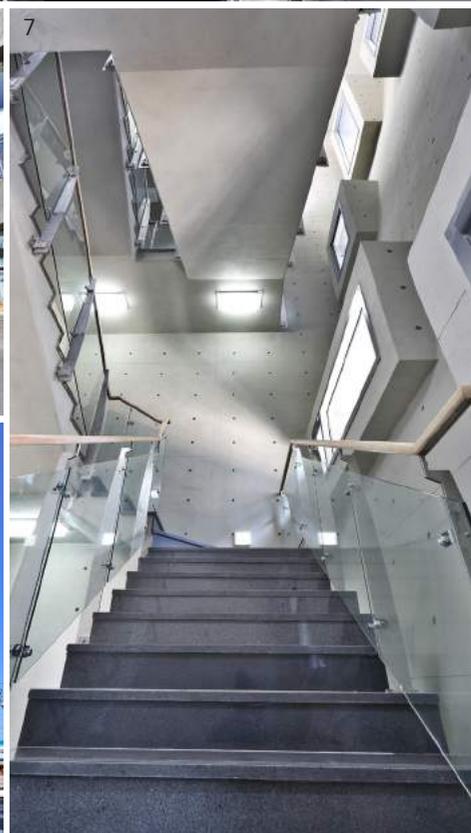


1

2

1. 남측 전경
2. 공장동
3. 주출입구 전경
4. 우측 입구
5. 입구
6. 부출입구 전경
7. 계단실





국립광주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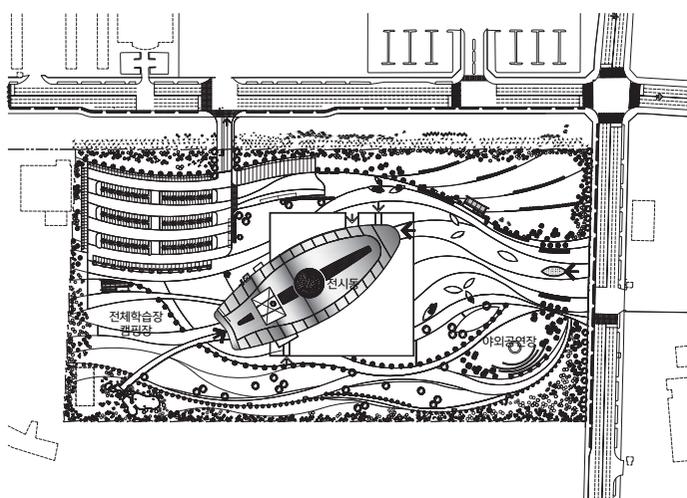
Gwangju National Scienc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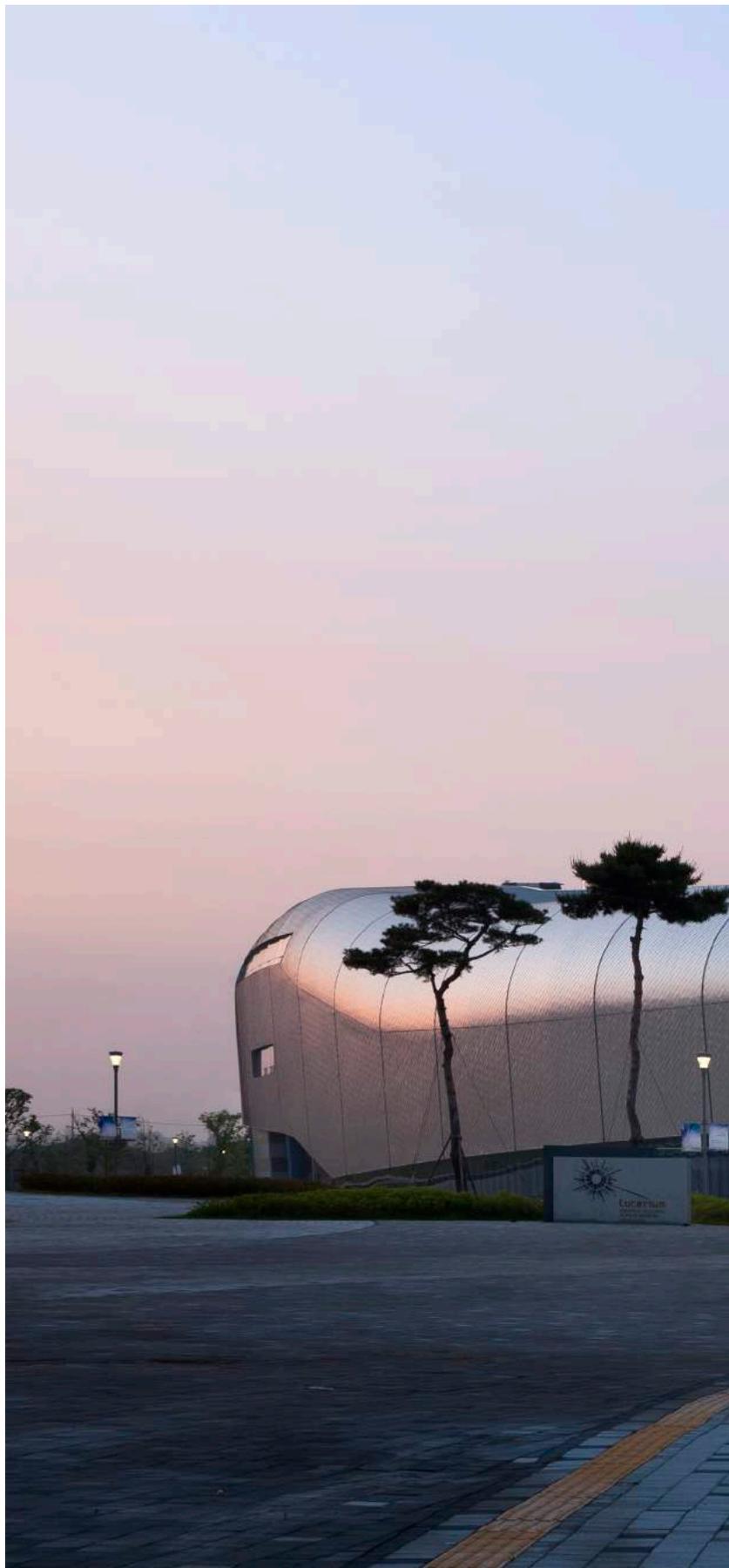
설계자 | 변 용_KIRA / AIA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명지대학교 및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하여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사, 미국(AIA) 및 일본(JIA) 건축사협회 명예회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수의 건축문화대상, 지자체 건축상, 문교부 및 건설부 장관상, 예총문화상 및 문화훈장 회관을 수여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태영분사 사옥(건축문화대상), 대법원청사(건축문화대상/건축가협회상), 삼성플라자(건축문화대상), 기상청청사(서울시건축상), 인천광역시 연구수청사(건축문화대상), 강북제일교회(건축문화대상), 여의도 태영빌딩(건축문화대상), 강동아트센터(건축문화대상/서울시건축상) 등이 있다.



배치도





건축주 | 구-교육과학기술부, 현-교육부
감리자 | (주)건원엔지니어링
시공사 | 한일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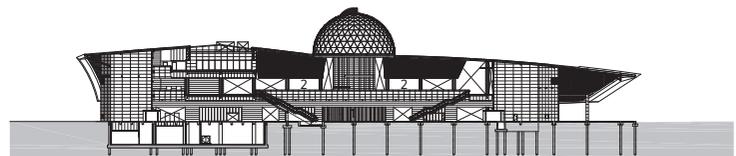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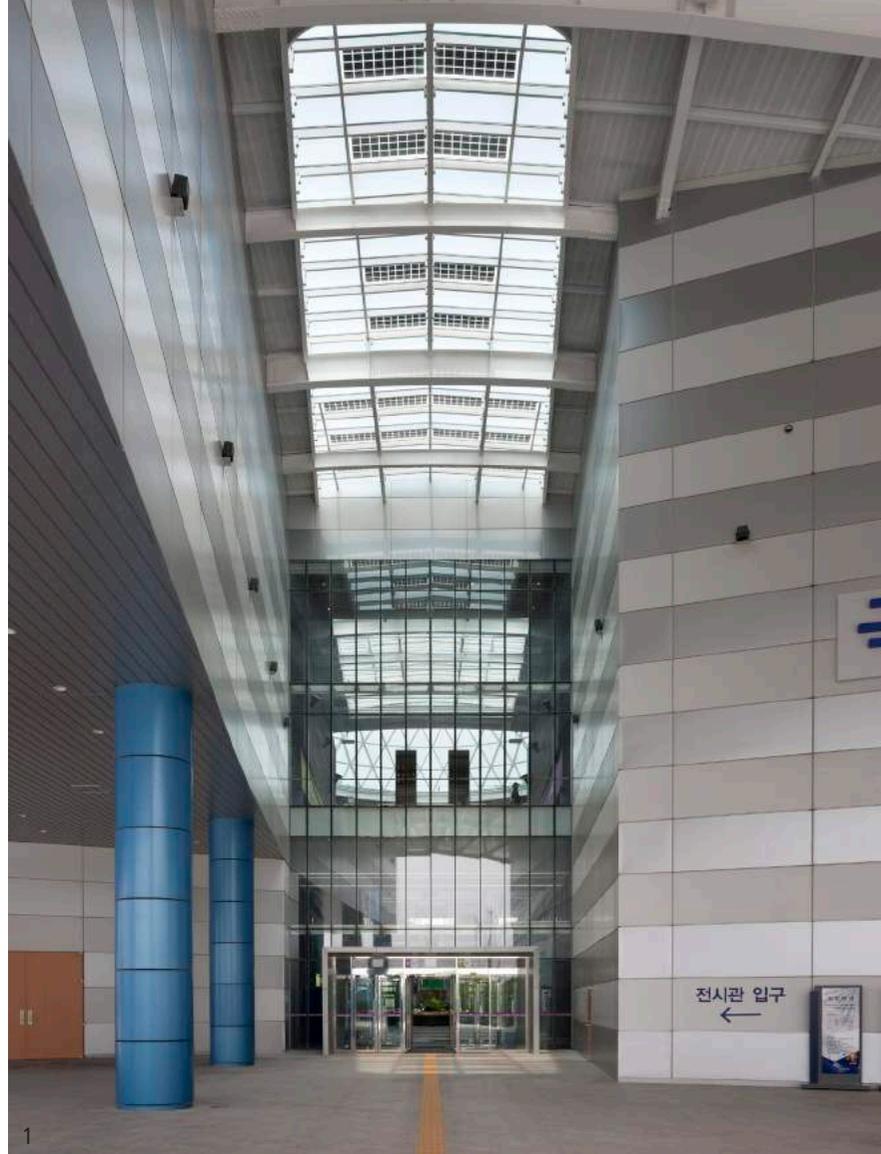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오룡동 1-6)
주요용도 |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98,248.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867.0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325.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9.03%
용적률(Floor Area Ratio) | 15.29%
규모(Building Scope) | 지하층, 지상3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SST Sheet(Dull FIN.), Metal Panel, Low-E pair Glass
- 내부 : 화강석, 목재, 롤/타일 카펫, 비닐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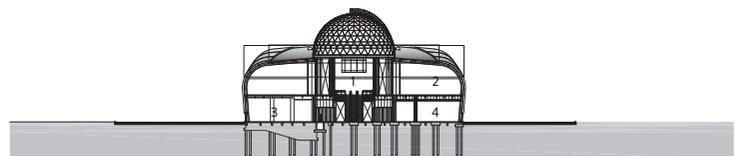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0. ~ 2009.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11. ~ 2013. 01.

- 설계팀 : 박석현, 최정오, 정준우, 양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동양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한일엠이씨
 - 전기분야 : (주)전기설계협인
 - 소방분야 : (주)한일엠이씨, (주)전기설계협인
 - 기타분야 : (주)한국지오컨설턴트, 솔토조경(주)

Client : Ministry of Education
Architect : Byun, Yong / Wondoshi Architect Group, Ltd
Project Team : Park, Seokhyun / Choi, Jungho / Jung, Junwoo / Yang, Hyun
Location : 235,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Structure : RC, Steel Frame
Structural Engineer : Dongyang
HVAC Engineer : Haniil MECH. ELEC.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Electrical Consultant Hyeob-In Co., Ltd
Fire Engineer : Haniil M. E. C / Electrical Consultant Hyeob-In
ETC : Korean Geo-Consultant Co.,Ltd / SOLTOS Associates Inc.
Finishing
Exterior : SST Sheet(Dull FIN.), Metal Panel, Low-E pair Glass
Interior : Stone, Wood, Carpet / Vinyl til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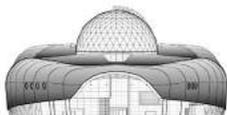
횡단면도

1_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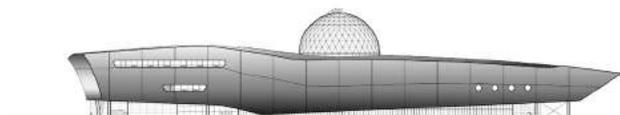
2_ 상설전시실

3_ 어린이전시실

4_ 기획전시실



남측면도



서측면도



계획개념 _빛의로의 여행 LIGHT VOYAGER

다양한 빛의 소통과 체험을 통해 빛의 축제를 만들어 갈 빛누리 광 주과학관

지구와 우주, 도시와 자연, 사람과 사람
어울림을 통한 소통의 장소가 되며,
하늘빛, 별빛, 물빛, 불빛...
세상의 빛을 담아낼 또 하나의 '빛의 우주'가 된다.

계획의 주안점

LANDMARK _상징

유선형의 우주선과 같은 상징적인 형태계획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첨단과학관

CONNECTION _소통

자연과 기술, 지성과 감성, 과거와 미래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다양성을 통섭하는 과학관

EXPERIENCE _체험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오감으로 경험하는 과학관

EMERGENCE _창발

다양한 빛의 체험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며 미래지향적 환경계획을 통해 진화하는 과학관

배치계획의 특성

전시관의 중앙배치로 적정규모의 광장 형성 및 균등한 영역구성
전시관과 연계된 유연한 외부공간 및 옥외 전시공간계획
광장, 관람객 주차장, 외부 체험공간, 사무동의 유기적이고 명료한 동선계획

대규모 부지임을 고려한 최소, 최적 동선 체계형성
장방형 부지 특성을 이용한 주 진입축 설정 및 상징적인 진입경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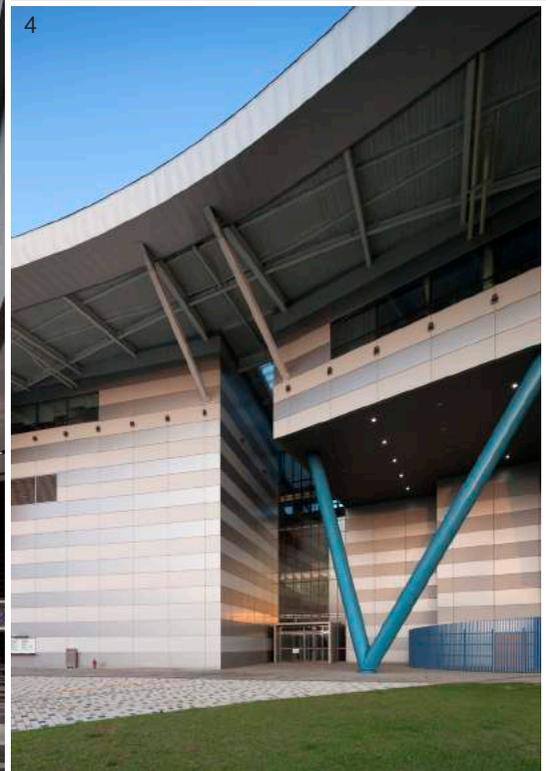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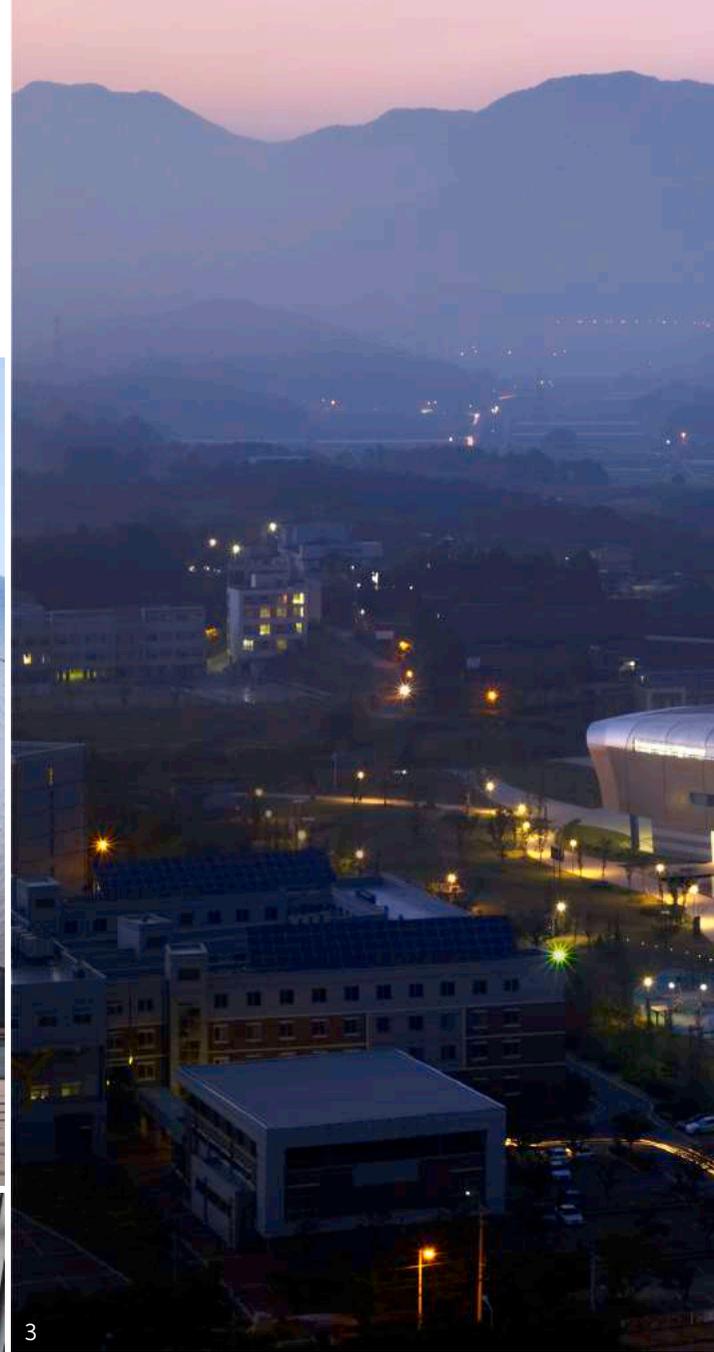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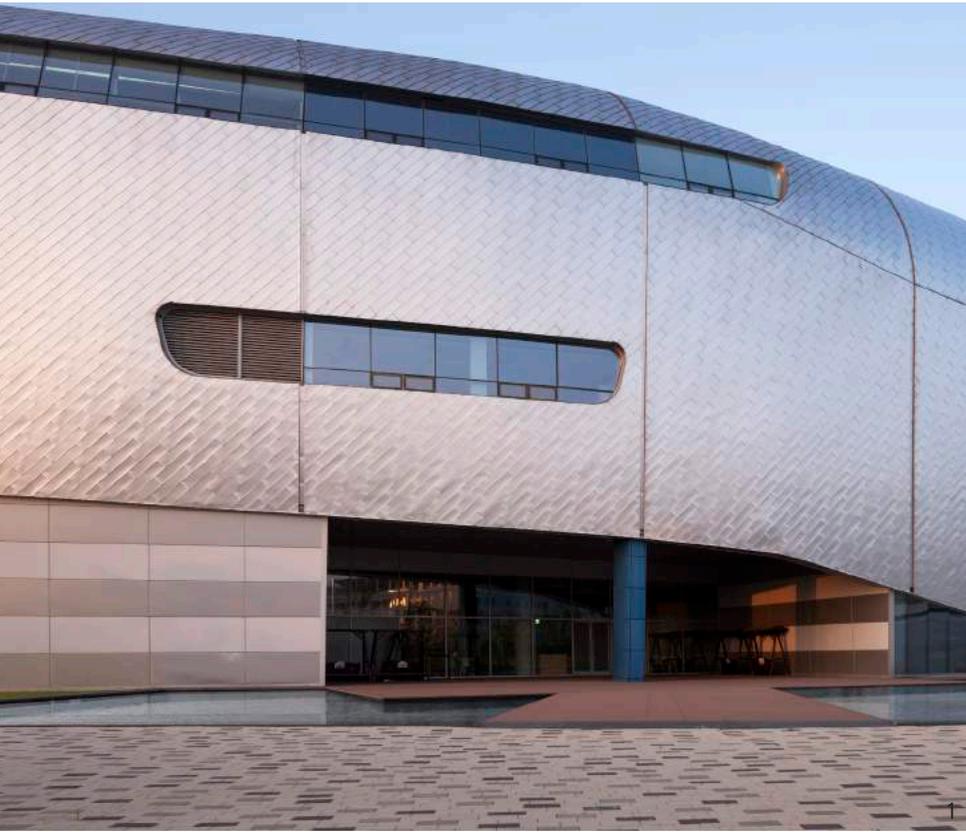
녹지, 시설물, 수공간 등을 적극 활용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형태계획

우주타원 은하의 모양을 차용하여 자연과 융합하는 첨단과학의 이미지를 표현했고, 미래를 향해 우주로 도약하는 꿈을 형상화했다.

외피계획

메탈과 유리로 구성된 매끈한 유선형 외피는 하늘빛, 별빛, 물빛, 불빛을 투영하여 다양한 빛의 세계를 연출하는 과학의 스크린으로 첨단 과학이미지를 표현했다. 매스를 둘러싸는 피복의 소극적 외피개념을 벗어나 거울못을 매개로 빛과 이미지를 투영하며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채로운 자연의 풍경을 담아내어 생태공원의 녹지와 주차시설 사이의 경계면에서 이질 공간 사이를 흐리는 완충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





5

1_ 야외테라스출입부 2_ 중앙홀 3_ 조감도 4, 5_ 부출입부

지방행정연수원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설계자 | 김명홍_KIRA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명홍 건축사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건축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출강중이다. 대표작으로는 웅상 문화체육센터, 성남 세무서,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등이 있다.



배치도





건축주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시공사 | 동부건설(주)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80,383㎡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589.71㎡

연면적(Gross Floor Area) | 49,368.9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43%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17%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로이복층유리, 화강석, 외단열시스템, 목재패널, 알루미늄시트

- 내부

강의동 : 바닥- 화강석, 카펫타일, PVC타일, OA FLOOR

벽 - 화강석, 목재흡음패널, 우드시트, 칼라유리,

친환경수성페인트

천장- T15 암면흡음텍스,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생활관 : 우드플로링, 비닐시트, 도배지

설계기간(Design period) |

- 턴키기본설계 : 2010.09 ~ 2010.12

- 실시설계 : 2011.01.19. ~ 2011.08.1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09.08. ~ 2013.05.31.

사진(Photographer) | 범건축(김원양)

· 설계팀 : 이상태, 최희철, 박현규, 여영선, 김보경, 성태원, 윤희용,
정동일, 이영선, 이기현, 박가을, 오선영, 강정우, 이동우,
이윤권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티섹구조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주)디이테크설비컨설턴트

- 전기분야 : (주)더한양

- 소방분야 : (주)지여이앤씨

- 토목분야 : 대경이앤씨

- 조경분야 :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 인테리어 : (주)대해건축

Client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rchitect : Kim, Myunghong (BAUM Architects, Inc.)

Project Team : Lee, Sangtae / Choi, Heechul / Park, Hyunkyu / Yeo, Youngsun

Kim, Bokyeong / Seong, Taewon / Yoon, Heeyong

Chung, Dongil / Lee, Youngsun / Lee, Kihyun / Park, Gaeul

Oh, Sunyoung / Kang, Jungwoo / Lee, Dongwoo

Lee, Yoonkwon

Location : 150, Bangyo-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Korea

Structure : RC/SRC(Reinforced Concrete/ Steel Reinforced Concrete)

Finishing

Exterior : Low-E Pair Glass, Granite Stone, External Wall Insulation, Wood Panel, T3 Aluminium Sheet

Interior : OA FLOOR, T3 PVC TILE, Granite Stone, Emulsion Paint, T15 acoustic Ceiling tile

- Structure Engineer : TSEC GROUP TOTAL STRUCTURAL ENG. & CONDT.

- HVAC Engineer : DE-TECH ENVIRONMENT & ENERGY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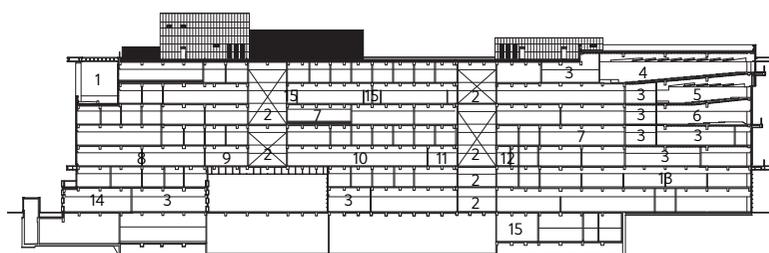
- Electrical Engineer : The HANYANG Engineering Co.,Ltd

- Fire Engineer : JIYEO Engineering&Consulting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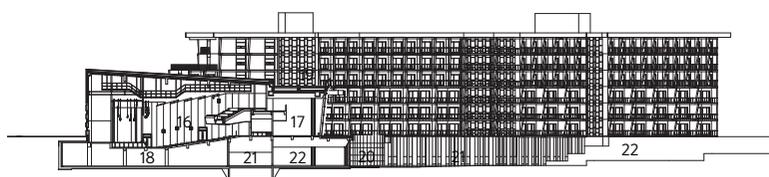
- Civil : DAEKYUNG Engineering&Consultant Co.,Ltd

- Landscape : Group HAN LANDSCAPE ARCHITECTURE & URBAN DESIGN

- Interior : DAE HYE Co.,Ltd (INTERIOR DESIGN & ARCHITECTURE)



강의동 횡단면도



대강당 종단면도

- | | | |
|------------------|---------------|-----------|
| 1 _ 스카이드েক | 9 _ 디지털자료실 | 17 _ 로비 |
| 2 _ 휴게실 | 10 _ 도서관 | 18 _ 주차장 |
| 3 _ 홀 | 11 _ 강사대기실 | 19 _ 옥상정원 |
| 4 _ 5급 승진자 집합강의실 | 12 _ 방송실 | 20 _ 데크 |
| 5 _ 중견리더 집합강의실 | 13 _ 시청각실 | 21 _ 산책로 |
| 6 _ 고급리더 집합강의실 | 14 _ 지방행정 역사실 | 22 _ 풍경정원 |
| 7 _ 전문교육 집합강의실 | 15 _ 창고 | |
| 8 _ 서고 | 16 _ 대강당 | |



전북혁신도시에 새롭게 들어선 지방행정연수원청사는 기존 청사의 권위적인 모습을 거부한다. 이 새로운 연수원에는 교육과 휴식이 공존하고 권위보다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 지역, 교육, 환경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했다.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여유 있는 큰 대지를, 연수원 본연의 영역, 지역주민을 위한 영역, 이를 연계하는 공동의 스포츠 영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연수원의 모습을 구상했다. 주변의 자연은 대지 전체에 녹아들어, 동쪽의 광석제와 주변의 근린공원이 연수원 전체를 감싸 안고 있다. 건물은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같이 흘러가듯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자연 요소가 건물 내부 곳곳에서 휴게공간, 데크 등의 모습으로 친환경 공간을 형성한다. 이곳은 이용자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이용되며, 내부의 최첨단 교육시스템이 더해져, 교육과 휴식이 조화된 창조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1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대지와 인접 대지의 분석을 통해 대지를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북측 광석제와 마주보는 연수원의 교육영역에서는, 권위적인 정면성을 탈피하고자 진입시, 빗겨난 건물 옆으로 열려있는 광장을 통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를 통해, 정면성이 강조된 건물이 주는 위화감을 감소하여 자연과 마주하는 여유로운 첫인상을 제공한다. 생활관과 강의동 중앙에는 광석제를 연장하여 복원한 수공간을 통해, 넓게 열린 연수원 영역만을 위한 쾌적한 정원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식당의 정원이 되며, 산책로가 되며, 어느 곳에서도 조망과 접근이 가능한 핵심적인 외부공간이 된다. 남쪽의 커뮤니티영역은 자연체험장과, 수공간, 습지공원 등을 통해 주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가간다. 대지 중앙부에 위치한 스포츠평원은 연수원 고유의 닫힌 영역과 대중에게 개방된 열린 영역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하며 연수원 사용자와 주민이 공유하는, 연수원의 새로운 상징적인 공간이 된다.

넓은 대지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순환동선을 구축하여, 대지 전체의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차량과 주차장은 원천적으로 대지 내부로 깊게 들어오지 않으며, 동시에 각 시설로의 연결이 짧고 간결하도록 고려했다. 주차장은 연수원 외의 다른 시설에도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여 모든 시설로의 접근을 쉽게 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이용자가 보행자 중심의 연수원을 체험하고 즐기도록 계획하였다. 자전거 길과 산책로는 운동코스로서 사용되며, 순환하면서 이용자가 필요한 각각의 시설에 쉽게 접근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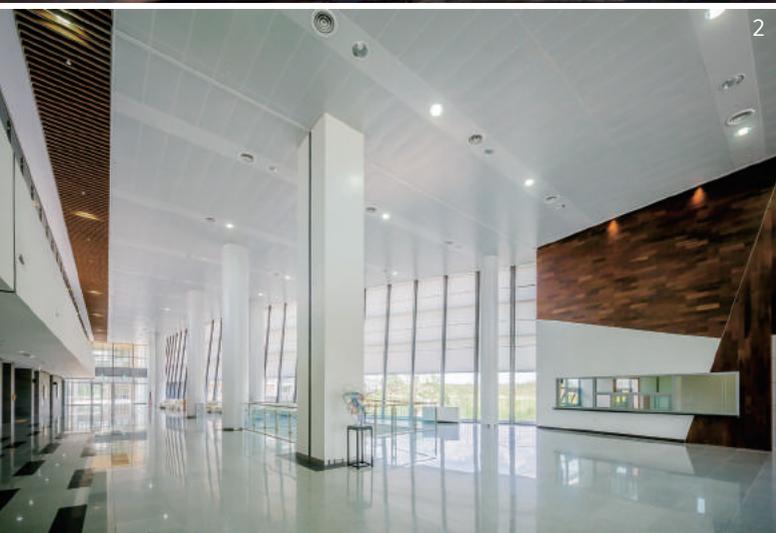
시설의 중심부에 배치한 식당, 대강당, 통합로비 등의 대공간은 강의동과 생활관을 이어줌과 동시에 모든 동선의 시작점이 된다. 이 중심공간을 통해 각 층에서 강의영역과 생활영역간의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며, 교육지원시설, 식당, 생활편의시설 등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교육시간 이후 연수생들의 생활과 편의를 충족하도록 했다. 강의동 상층부분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층별로 분리배치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생활관에서도 1인실과 2인실을 층별로 분리배치, 교육생의 다양한 인원 수요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다.

주출입구의 통합로비는 중심공간이자 상징적인 공간으로, 모든 동선을 모아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광석제로 열린 조망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설의 핵심 공간이다. 아래층의 식당과 함께, 이 두 개의 대공간은 연수생에게 소통과 교류, 그리고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 장소로 사용할 것이다. 그 상층부는 그린 브릿지(옥상정원)로 강의동과 생활관을 이어줌과 동시에 광석제로 열린 조망을 가진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의동과 생활관은 긴 매스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전층에 걸쳐 뚫려있는 에코 보이드와 휴게공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강의영역에서는 분임, 강의, 휴게를 통합하는 클러스터형 강의 공간을 구성하여 지향하고자 하는 토론 위주의 교육환경을 형성한다. 남향으로 배치한 생활관은 광석제로의 조망을 통해 생활공간에서도 쾌적함과 여유로운 환경을 동시에 만족할 것이다. 가변형의 생활실 구성은 언제든지 향후 수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이 생활관 매스에서도 중간 중간에 계획한 휴게실과 공공시설로 자연 통풍과 채광이 가능하며, 편리함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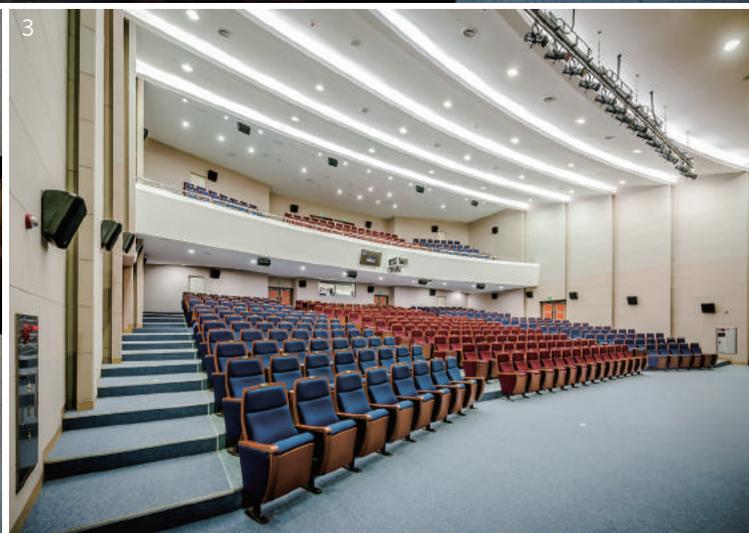
입면은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기 위한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청사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청렴한 공무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대나무의 형상을 차용하였다. 상대적으로 긴 매스를 대나무 숲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지루함 대신에 리듬감 있는 분절을 구사했고, 분절된 입면에서 창호와 벽체를 반복함으로써 창호 면적을 32%로 낮추어,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광선반과, 내부의 휴게공간과 연계된 에코 보이드를 통해 건물 전체는 별도의 특별한 추가 장치 없이도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생활관 또한 죽순의 이미지를 차용한 입체적인 발코니를 통해 조망을 극대화하면서도, 서향 햇빛을 적절하게 막아주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 적용한 모범적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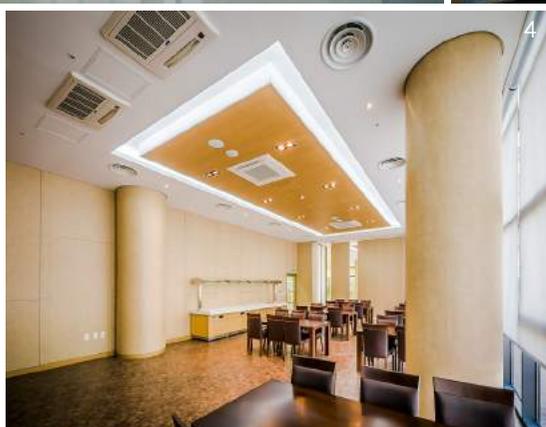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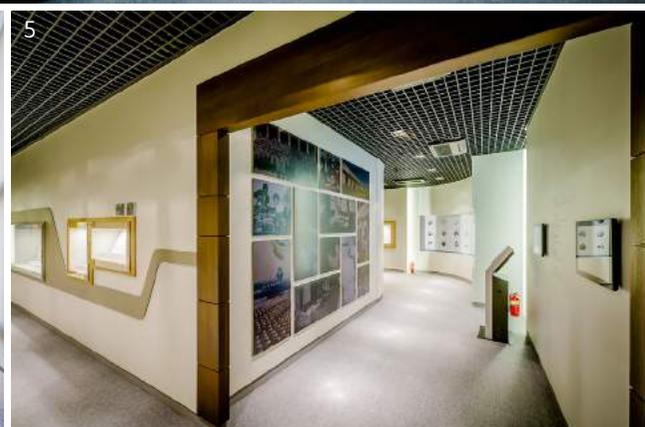


3

- 1. 선큰데크
- 2. 공용로비
- 3. 대강당
- 4. 식당
- 5. 지방행정역사관
- 6. 동측전경
- 7. 실내체육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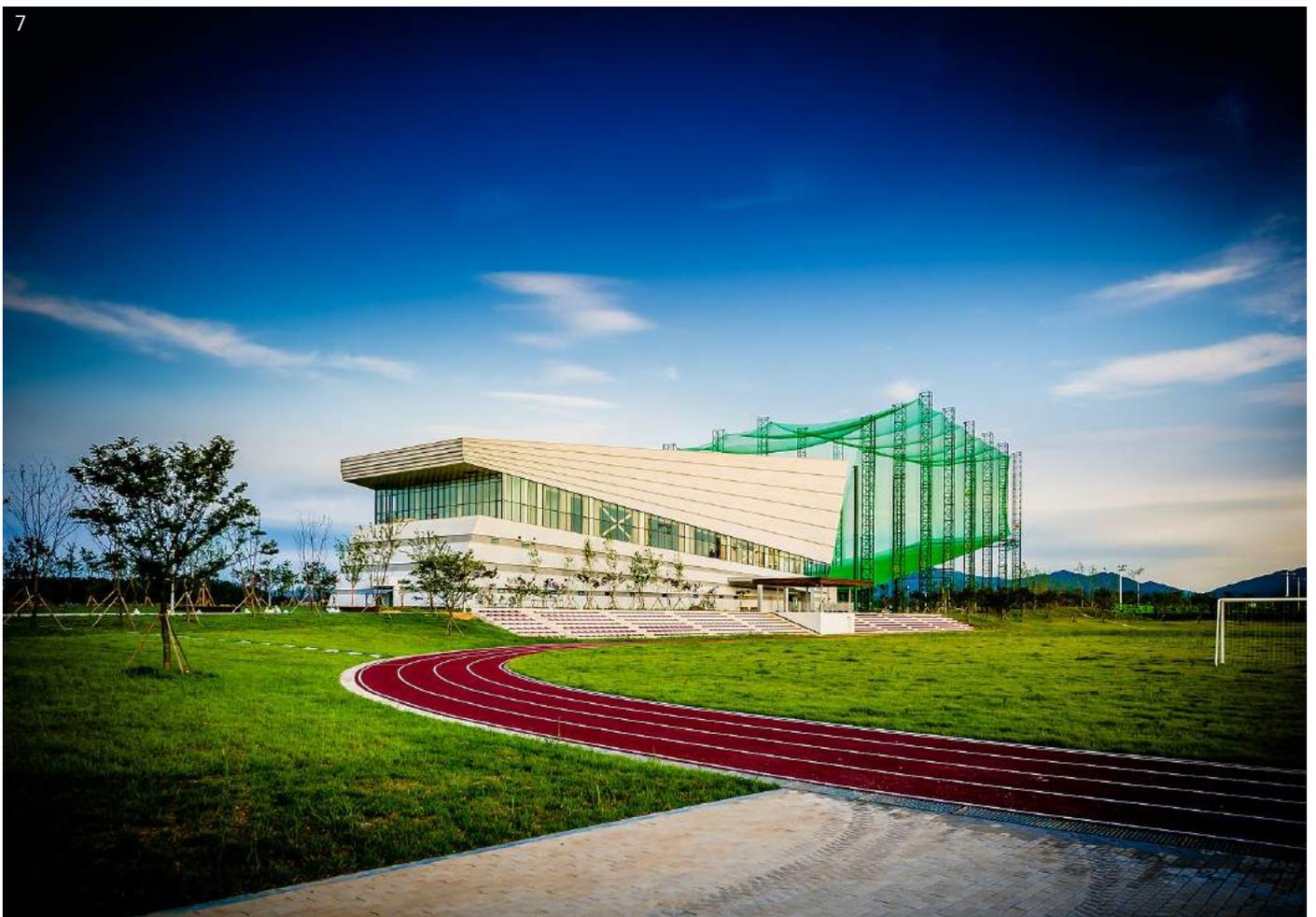


5



6

7



신진말빌딩

Sinjinmal Building





1



2



3



4



설계자 | 임형남_KIRA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금산주택, 루치아의 돌, 신진말 빌딩, 존경과 행복의 집, 성옥기념관 등을 설계했다. 적십자 시리아 리퀘스트,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등 도시·사회 관련 프로젝트를 맡았고, 공간디자인대상, 아천건축상 등을 수상했다.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사람을 살리는 집』, 『나무처럼 자라는집』, 『서울풍경화첩』 등 9권의 저서를 냈다.

- 1. 동측 내벽
- 2. 서측 전경
- 3. 동측 전경
- 4. 남측 창

건축주 | 심기보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시공사 | (주)에지인 종합건설

대지위치 | 인천시 서구 가좌동 280-1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94㎡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0.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17.0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73.8%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노출콘크리트
- 내부 : 시멘트벽돌, 에폭시코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1. 03~2012. 09. 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3. 11~2013. 08. 30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ae)

- 설계팀 : 최민정, 이상우, 손성원, 이성필, 이한뢰, 정혜리, 문주원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대주ENC
 - 기계설비분야 : 주성MEC
 - 전기분야 : 주성MEC
 - 소방분야 : 주성MEC
 - 유틸리티 : 한길엔지니어링

Client | Shim, Kibo

Architect | Lim, Hyoungnam / Roh, Eunjo - studio_GAON

Project team | Choi, Minjung / Yi, Sangwoo / Son, Seongwon

Lee, Sungpil / Lee, Hanmoe / Jung, Haelee

Moon, Joowon

Location | 280-1, Gajwa-dong, Seo-gu, Incheo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aejoo ENC

HVAC Engineer | Joosung MEC

Electrical Engineer | Joosung M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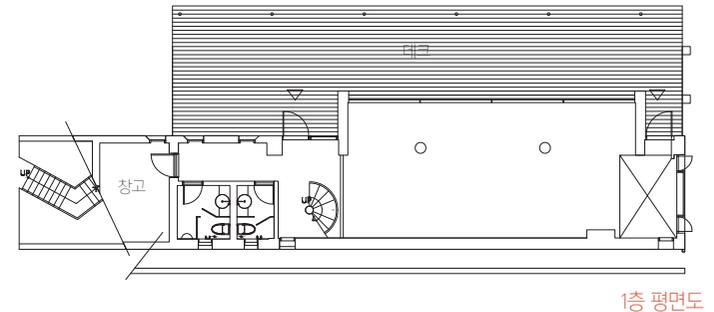
Fire Engineer | Joosung MEC

Utilities | Hangil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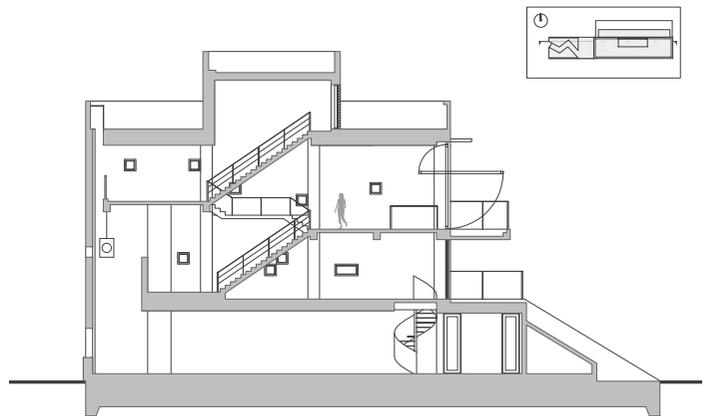
Finishing |

Exterior : Expos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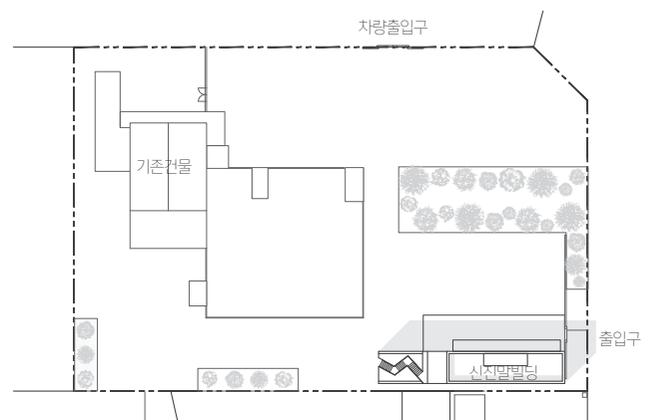
Interior : Cement Block, Epoxy Coating



1층 평면도



중단면도



배치도



3

1_ 서쪽 계단 2_ 2층 내부 3_ 1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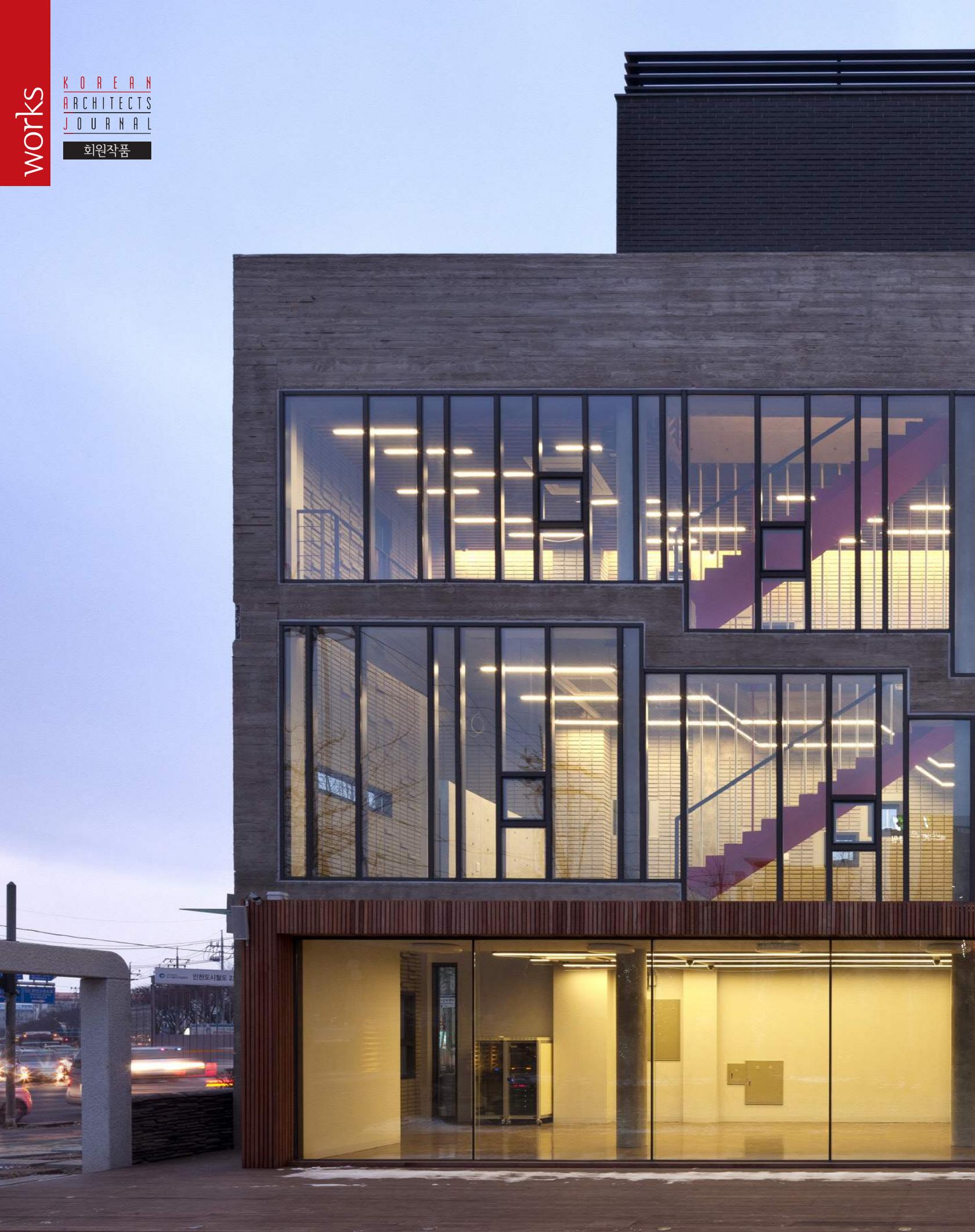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산업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빈 책꽂이에 책을 넣듯 빈 땅에 건물을 세워 문화의 스위치를 켜는 생각을 담은 작업이다.

인천 가좌동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동네였다고 한다. 땅이 있는 블록은 사면이 도로에 접하여 지금은 바닷물 대신 자동차가 넘실거리며 집을 에워싸고 있다. 목재소와 지하철공사 현장과 공장이 즐비하고 아파트가 둘러싼 동네의 결은,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의 손가락처럼 지문이 모두 지워진 채 도무지 찾아지지 않았다. 유서 깊은 한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의 한쪽에는 17세기 후반에 지어져 사백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고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 있다. 백두산에서 잘라온 소나무로 지었다는 그 집은 박물관의 박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오는 동안 변화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쌓여온 삶의 흔적을 가감 없이 담고 있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주는, 얼마 전 옆 땅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경계를 측량하다 폭 4미터, 길이 20미터의 길쭉한 땅을 되찾았다고 한다. 옆 땅에 택배회사가 들어와 조금 소란스러우니, 그곳에 건물을 지어 적당히 경계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오래된 집의 역사적인 장소성을 되찾고 공장들이 나가면 차츰 문화적 용도로 블록을 채워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우리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먼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보자”라고 마음먹은 농부처럼, 그곳에 책을 한 권 꽂아 놓자고 이야기했다. 책

처럼 일단 길게 건물을 올리고 그 안에서 층을 나누었다. 옆 땅과 면한 남쪽은 적극적으로 막았고, 북쪽을 활짝 열어 도시의 촉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쪽에서 무척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400년 된 한옥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을 설치했다. 예전에 광주 식영정에 갔을 때 비틀비틀 올라가던 계단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언젠가 한번 꼭 써 보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적용한 것이다.

사실 가장 좋은 건축의 재료는 시간이다. 어떤 추한 개념이나 형태, 재료도 시간의 포괄적인 힘 앞에서는 그냥 덮이고 순화된다. 이 땅 역시, 이 건물 역시 시간이 담길 것이다. 다만 가장 시간에 잘 어울리는 재료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다. 그래서 외피는 나무의 결을 살리는 노출콘크리트로 투박하게 만들었다. 내부는 시멘트 블록을 툭툭 내어썬아 천장을 통해 내리는 빛의 그림자가 공간에 무덤덤한 리듬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한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개의 층위와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간의 중첩으로 생기는 한국건축 특유의 역동성을 표현하기로 했다. 공공적인 용도로 쓰일 3층의 바닥 슬래브를 계단식으로 만들고, 서쪽의 한 옥을 향해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유리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단면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사선의 계단에는 강렬한 빨간색을 칠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생길 변화를 암시하는 선이다.







광주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당선작

Gwangju Sports Complex
(Multipurpose Gymnasium)

발주자 : 경기도 광주시청

설계자 : 노형래_KIRA |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조영채, 장승현, 이수민, 윤지영, 최운식

건축주 : 경기도 광주시청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3-2번지

주요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38,064㎡

건축면적 1,775.53㎡

연 면 적 4,319.42㎡

건 폐 율 4.66%

용 적 륭 11.3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트러스조,
스페이스프레임(지붕)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마 감 외부 - 알루미늄복합판넬, 알루미늄루버, 편칭메달, 로이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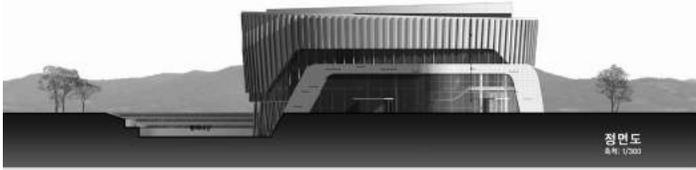


경기도 광주는 가장 먼저 도자기를 떠올리게 되며, 그 중에서도 달항아리 형상의 도자기로 대표 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계획안은 광주가 처음으로 갖게 되는 종합체육관이며, 이런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표출한 공공문화 체육시설로서의 상징적 조형성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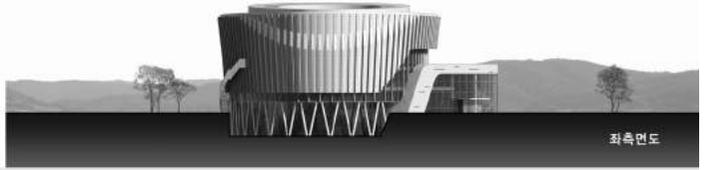
달 항아리의 둥근 원과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돌출된 수직선과 어우러져 형상화된 디자인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형태가 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가지며, 주변의 옥외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계획안은 큰 선권이 의도되어 있다. 이는 2개의 대공간을 적층함에 따라 생기는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레벨계획으로 진입동선을 분리하여 혼잡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며, 그 선권을 계단식 형태로 디자인하여 지상의 조경과 연계시키고, 빛과 바람을 지하 배드민턴장으로 유입시켜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주고, 열린 광장에서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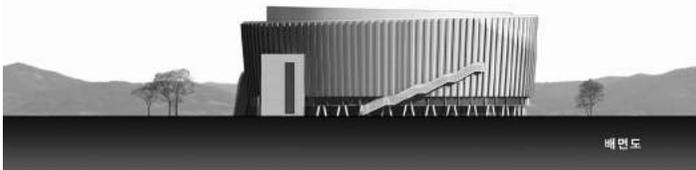
■ 입면도



정면도
축척: 1/200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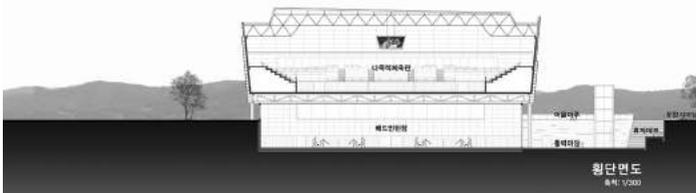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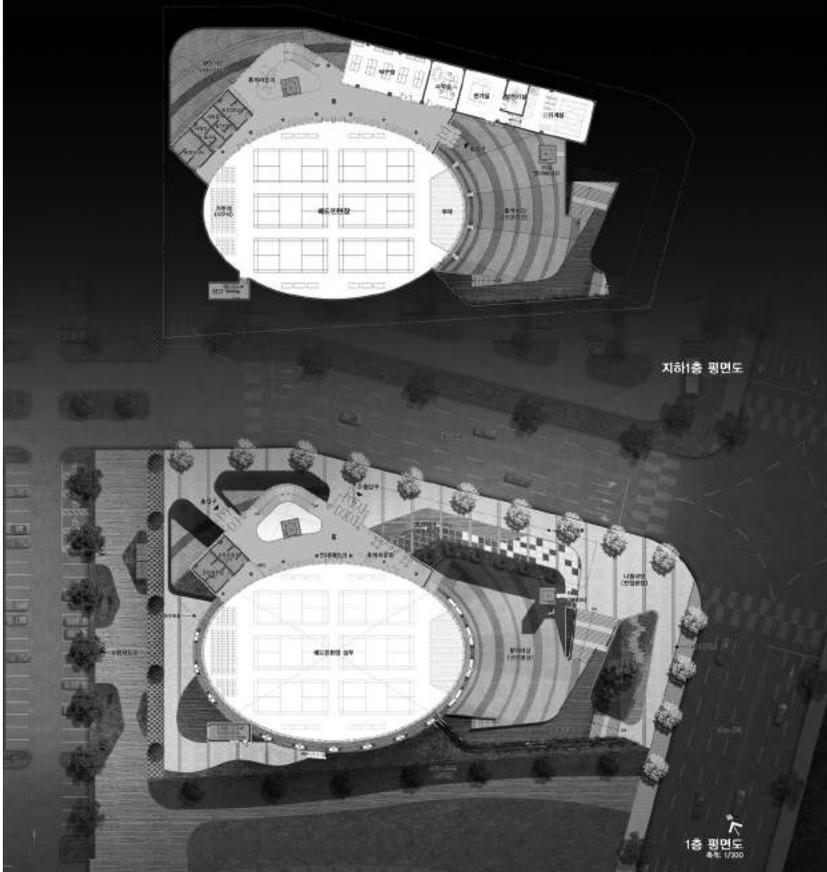


횡단면도
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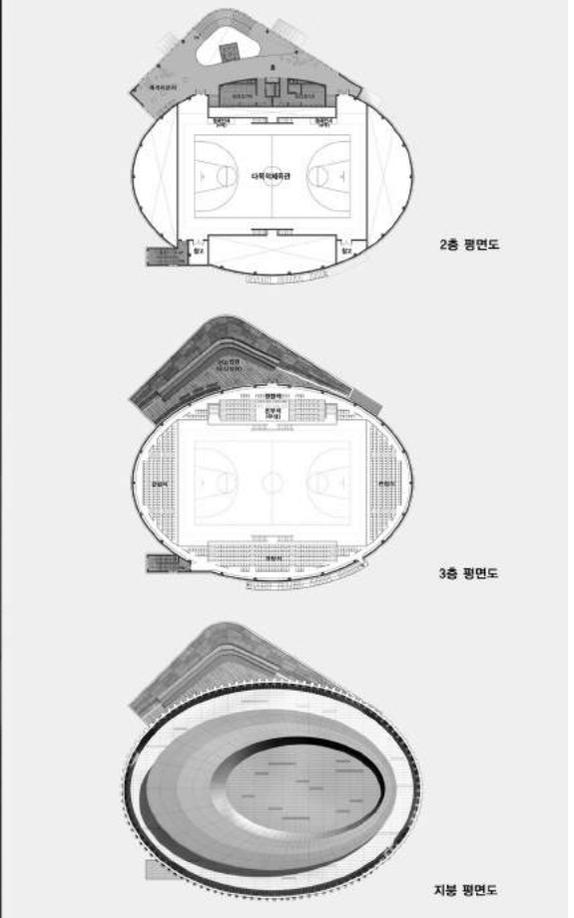
종단면도

■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축척: 1/200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서울대학교 의대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

Global Education Center for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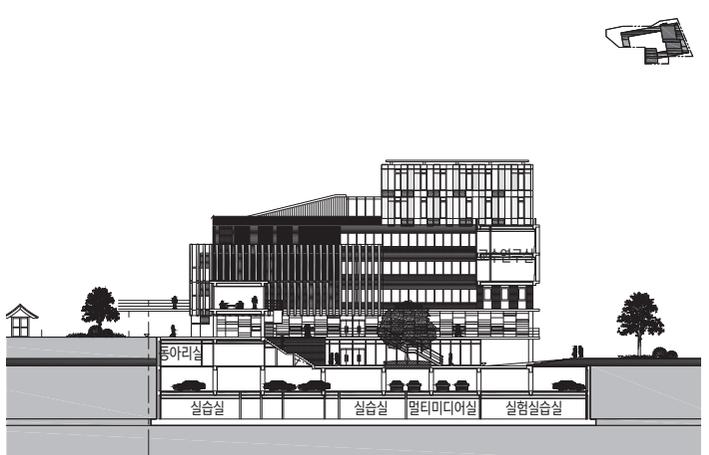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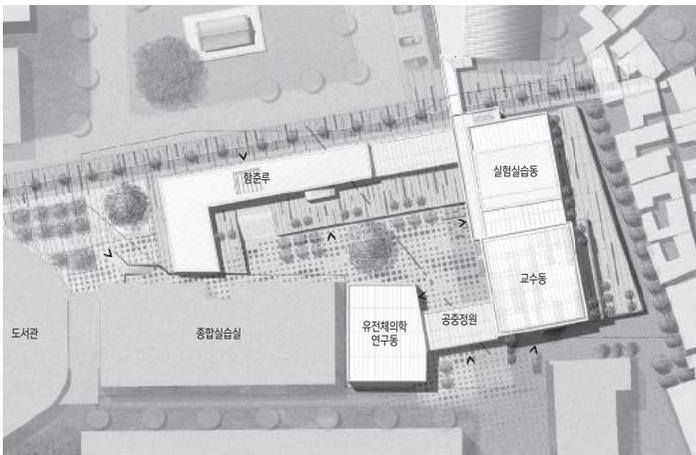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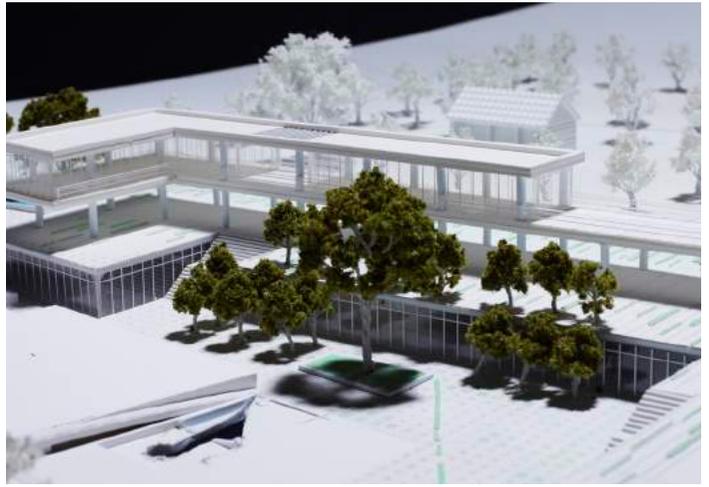
발주자 : 경기도 광주시청
설계자 : 최명철_KIRA / 조성진 | (주)단우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송창환
건축주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 연건캠퍼스 내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104,879.40㎡
건축면적 3,369.32㎡
연 면 적 16,447.07㎡
건 폐 율 3.21%
용 적 률 8.9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6층, 지하 2층
마 감 적벽돌, THK24 투명복층유리

서울대 의대는 첨단의학의 발달과 산학연 협동연구 필요성의 대두, 실습 위주의 소그룹 교육 등을 위한 첨단 교육 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 의대 융합의생명 교육연구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산학연 다학제 연구 중심의 공간, 캠퍼스 부지 활용의 극대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건캠퍼스내 국가지정문화재인 함춘원지를 적극 보존하고, 협소한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를 개발하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함춘원지와 종합실습동의 레벨차를 이용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해 풍요로운 캠퍼스가 되도록 하는 공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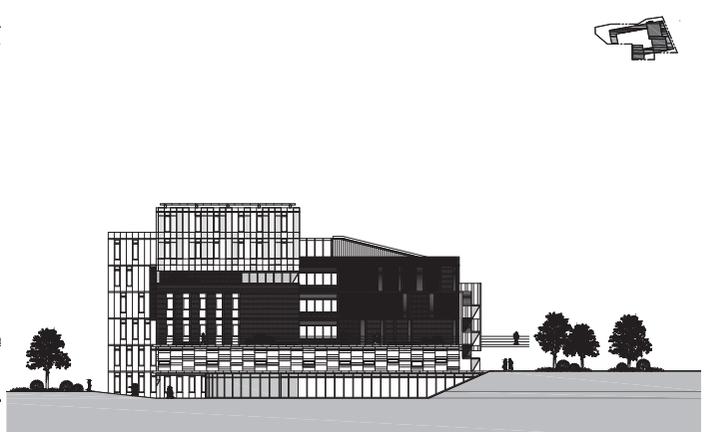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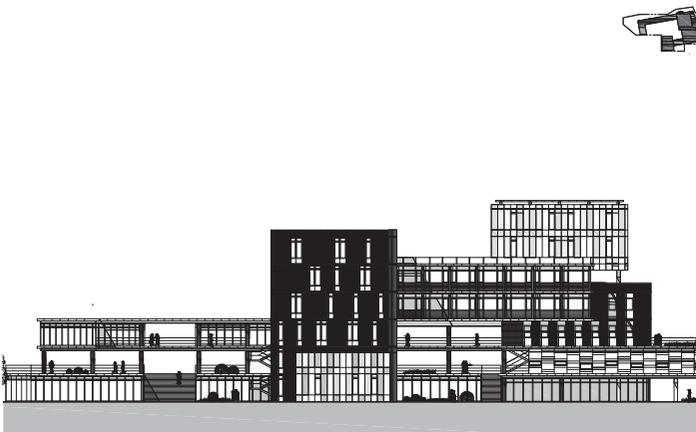
대지는 역사적 공간인 창경궁과 종묘 등과 인접해 있으며 공연 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와 접해 있다. 또한 동대문이 멀지 않아 상업적 공간들과도 연계된다. 창경궁로, 대학로, 율곡로 등 외부와 연계되는 길들과 서쪽의 창덕궁과 창경궁, 동쪽 마로니에공원과 낙산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녹지와도 함께 한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했으며 차량동선은 교수연구동으로의 원활한 진입 및 편리를 도모한 진입을 고려했다. 그리고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캠퍼스의 활동적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서울대 연건캠퍼스는 창경궁의 후원인 함춘원에 자리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함춘문 외에 찾아보기 힘들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 남아있는 함춘문을 바라보는 문화 역사축을 수용했다. 그리고 기존 학교 축을 수용해 함춘마당과 춘춘마당을 구성했다. 이 곳은 캠퍼스의 오픈스페이스이자 門이다. 기존 캠퍼스와 연관된 일관성있는 재료를 사용했으며 주변환경의 보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꾀하는 배치, 저층부를 개방해 주변과 흐름을 막지 않고 문과 같은 건축물이 되도록 했다.



배치도

단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서귀포 남원읍사무소 청사 큰엉

Architecture to resemble a nature

설계자 : 홍광택_KIRA /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설계팀 : 강경훈, 오경은, 오난영, 송현규, 이오중
건축주 : 남원읍사무소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남원리 205-1번지 외 4필지)

주요용도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공공청사

대지면적 3,760㎡

건축면적 1,311.10㎡

연 면 적 3,313.69㎡

건 폐 율 34.87%

용 적 륭 54.33%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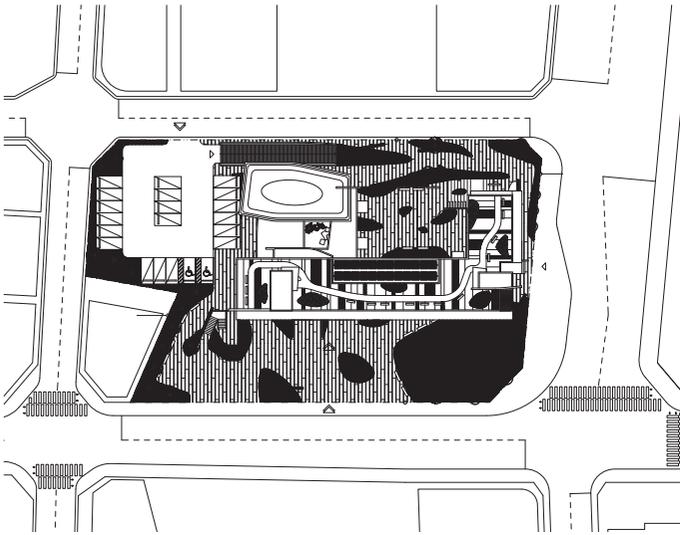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마 감 외부 : 칼라시멘트보드, 제주석 판석, 칼라징크, 유로스타코
내부 : 친환경 수성페인트, 방염흡음보드, 불연천정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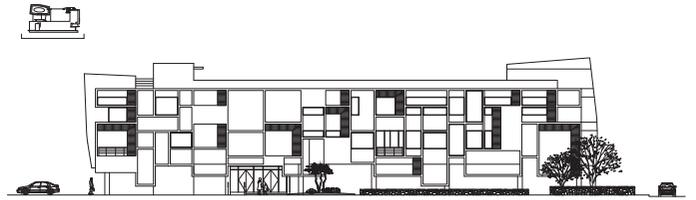


엉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언덕을 뜻하는데, 남원 큰엉은 큰 바위가 바다를 집어 삼킬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언덕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절벽 위는 평지로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다. 바다를 향하여 높이 30m, 길이 200m의 기암절벽이 오랜 세월동안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를 감싸 안은 2개의 자연동굴을 보노라면 세속을 떠난 듯한 다른 세계, 때 묻지 않은 자연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남원읍사무소를 계획함에 있어 주변의 자연요소인 큰엉이 있는 해안절벽을 모티브로 하였다. 파도에 의해서 생겨난 기암절벽에 빛이 내리쬐면 무수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해안절벽에 생겨난 그림자는 절벽과 어우러져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달라 하나하나를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남원읍사무소에서라도 기둥에 의해 지면에서 띄어진 수평, 수직의 차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를 만들어 건축물에 다양한 입면성을 부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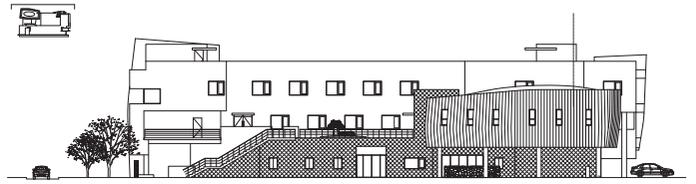
돌의 정원과 파도의 정원, 주민휴게공간은 자연을 건물 안에 삽입한다는 개념으로 사용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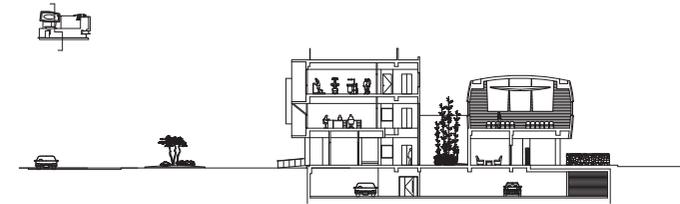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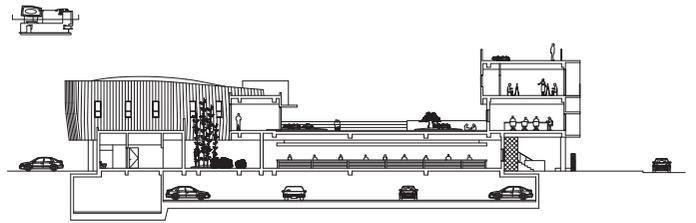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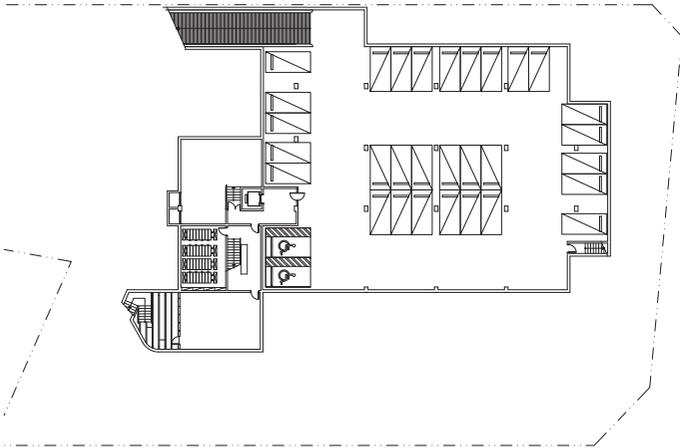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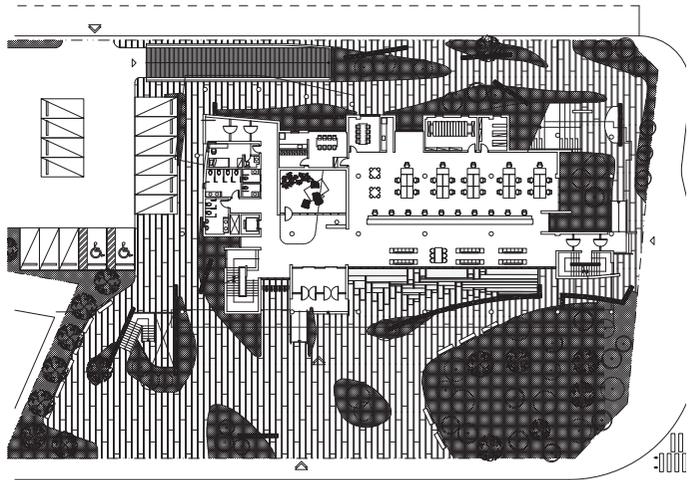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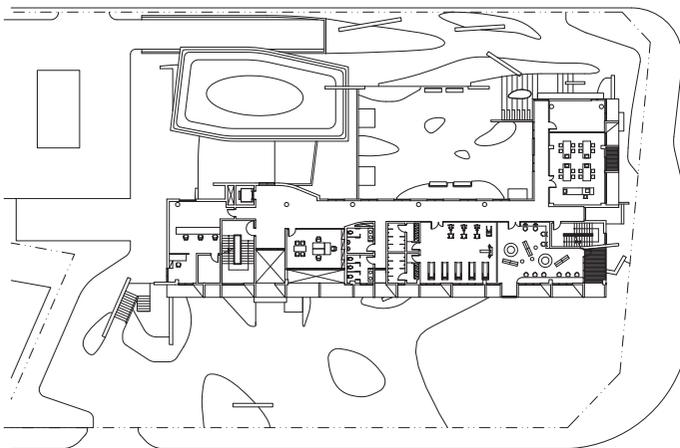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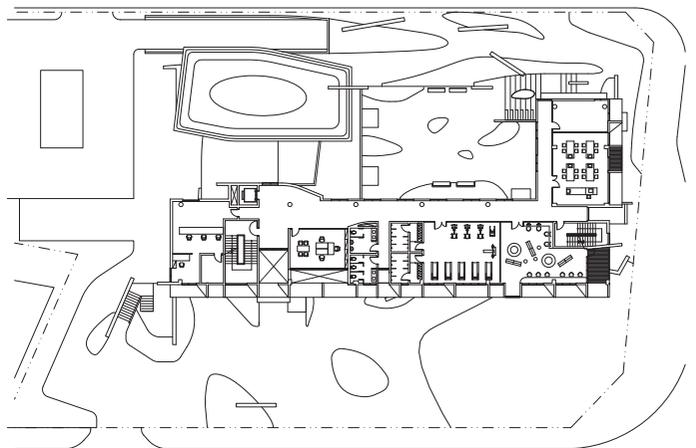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와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2015. 4. 1.)

Self-government at the multi-unit dwelling and legal status of the head of management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하고(주택법 제43조 제1항), 입주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주택법 제43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3조 제4항 본문, 다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제5항)

한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며,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형사·가사·행정·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는데,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고(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그런데, 주택법은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4호 (가)목], 주택법을 비롯하여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의 여러 조항에서 자치관리기구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구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주택법 제43조 제4항,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과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임명된다.(주택법 제5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3항 및 제4항, 제72조,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그리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주택법 제55조 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위와 같은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

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공동주택)에 있어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참조)

위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를 관리사무소장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차인에게 해당 보육시설의 명도를 구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대전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9954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serial

글. 김수경_KIRA | Kim Su-geoung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이란 기행

Iran Travel

미지의 나라, 이란

여행에 대한 설렘은 말해 무엇하랴!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누구나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 우리에게는 오지보다 더한 오지의 나라로 여겨지는 이란, 이곳을 다녀오게 되었다. 이란이 페르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1935년 페르시아는 국호를 ‘아리아인의 나라’ 라는 뜻을 지닌 이란으로 개칭하였고, 1979년 반정부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가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핵무기개발로 인해 미국, 이스라엘 등과 국제사회 갈등을 빚고 있고, 이 이유로 고립 아닌 고립으로 현세기를 견디고 있는 나라다. 친미인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곳을 용감한 교수 한 분과 유적탐사로 몇 번 오간적이 있는 박물관 팀장이 주축이 되어 답사팀을 꾸렸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나는 초등학교 두 아이와 긴 여정을 준비했다. 주변 지인들과 어른들은 하나같이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 위험한 곳을 가느냐고 말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나 또한, 선배의 전화에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지막 날까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짐을 꾸렸다.

이란...우리가 이란에 대해 얻은 정보는 주로 TV속 영상의 이미지다. TV에 나오는 이슬람국가의 이미지는 한결같다. 전쟁과 폭력, 여성 인권유린...등등. 그러나 옛 페르시아, 역사 서적속에서만 존재하던 나

라의 유적을 본다니, 얼마나 신기하고 두근거리는 일인가? 모든 걱정은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고 싶다는 열망으로 다 덮고 과감히 비행기에 올랐다. 일단 카타르 도하까지 13시간 비행, 다시 테헤란으로 2시간, 연착시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6시간여 만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큐빅디자인연구소에서 잠깐 인테리어를 접한 후, 그 후로는 (주)광장건축과 (주)아키텍스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건축사를 취득한 후, 1년여 간 런던에 머물면서 유럽을 여행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재 목차

여행길 : 인천공항 - 도하 - 테헤란 - Yazd - Shiraz - Isfahan - 마티드바드 - 테헤란 - 도하 - 인천공항

1.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1)
(테헤란, Yazd, Shiraz)
2.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2)
(Isfahan, 마티드바드, 테헤란, 도하)

2. 페르시아 문명과 만나다.(2)

Day 4 : 쉬라즈를 떠나 이스파한으로
(고레스 대왕의 묘, 고레스 대왕의 궁)

쉬라즈에서 120km 떨어진 파사르가데에 **고레스 대왕의 묘(The tomb of Cyrus the Great)**가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디 넓은 사막, 황량한 등선, 풀 한포기 마저도 힘겹게 자라는 곳을 달리다 보니 우주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란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고레스 대왕은 전쟁 중에 해외에서 생을 마감하였는데, 신하들은 커다란 석묘를 만들어 당시 정치,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안치시켰다. 석묘는 하얀 대리석 판을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고 정교하게 맞물려 당시의 정교한 건축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장군총과 흡사한 6층 계단에 높이가 11m인 무덤은 2500년의 유구한 세월에도 손상 없이 잘



고레스 대왕의 무덤



고레스 대왕의 궁

보존되어 있는데, 이곳 묘비명이 유명하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노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기록했다고 하는데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여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고 무서운 기세로 이 무덤 앞에 왔지만 묘비에 새겨진 글을 읽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무덤에 덮어 주었다고 한다. 죽어서도 지혜로운 왕 덕분에 이 무덤은 긴 역사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 듯 보였다.

석실무덤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고레스 대왕의 궁전 터(The Palace of Cyrus the Great)**가 복원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십 개의 기둥들만 남아있을 뿐인데도 수많은 동근 기둥사이를 걸으니 당시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었다. 영어의 정원 Gardend이 페르시아어 Gadea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페르시아 정원은 유명한데, 이곳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한 정원이 있었다고 전한다. 강도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거대한 궁전과 궁전 중앙에 희귀한 동식물로 가득했었을 넓은 정원, 검은 대리석 초석위에 둘레 3m의 대리석 원주에 살짝 기대어 보니 전율이 흐른다. 차로 잠깐 달리다 복원 중인 유적 앞에 내렸다.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유적이란다. 웅장한 석조의 전면이 상당한 규모였을 거 같은데, 알 수 없는 유적이란니. 발에 걸리는 유적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잠재적 가치가 얼마일지 가늠해 보았다. 아직은 미개발 중이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란이 개방화 물결을 탄다면 지금 이곳에서 만져보는 커다란 돌무더기들이 어떻게 평가될까? 몇 시간을 달려도 작은 마을도 사람이 살 법한 풍경조차 보지 못한 채 끝없이 펼쳐지



중세 여락



는 사막을 달리다 가이드가 잠깐 어디를 들르자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흥이 많은 가이드는 일정에는 없었으나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니 보여주고 싶다고 옛 상인들이 사막을 통해 무역을 하다가 잠시 쉬다가는 곳으로 데려가 주었다. 가운데 커다란 중정이 있고 중정 주변에 작은 크기의 방들이 주욱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여관 같은 곳이었다. 지금은 그 흔적만 있을 뿐 관리인도 방문객도 없는 폐허와 다름없는 곳이지만,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를 했던 상인들에게 이곳은 그 옛날에는 오아시스 같은 곳일 거라 여겨졌다. 이란 정부는 이 주변을 보존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수년 후 이곳을 당시 방문한다면 지금처럼 한적하게 유적을 관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 유적지를 가더라도 지금의 이란처럼 한가하게 유적의 긴 역사를 상상하며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여행이 축복임에 틀림없다.

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고, 중간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허름한 식당도, 휴게소 하나 없는 고속도로도 지나긴 여정을 더 지루하게 했다. 자고 또 자도 이스파한 도착은 먼 것처럼 보였다. 작은 나라에서 몇 십 킬로미터 마다 있는 휴게소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겐 생소한 경험이었다. 여행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 덕에 여러 종류의 간식을 제공 받지 않았다면 더 지루했을 것이다.

거의 5시간을 족히 달렸을 것 같다. 이스파한의 황금시대는 1598년에 시작되어 17세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한다. 거의 저녁이 되어 도착한 이스파한에서 먼저 간곳이 세계 5대 다리 중 하나라는 Khaju였다. 긴 버스의 이동으로 지쳐있는데 다가 이스파한의 밤은 너무 추웠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여기서는 너무나 혼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며 우리가 본 것은 다리의 야경이었다. 길이 133m, 너비 12m, 상하 2층으로 되어있는 다리는 옛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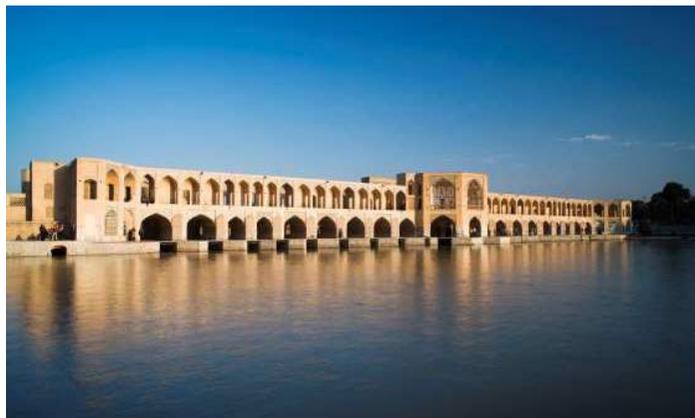


알수없는 유적

이스파한으로 향하는 버스에서의 시간은 이제는 길고도 지루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이색적인 풍경이 이제는 더 이상 감흥



이스파한으로 향하는 풍경



khaju 다리

에는 2층이 왕의 주연을 위한 테라스 기능을 했다고 전한다. 현재는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오로지 사람들만이 이동하고 노니는 장소인데, 늦은 시간에도 이곳 저곳에서 토론을 하는지 노는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낮선 이방인의 방문을 한편으로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차도 권했다. 이곳에서 다리는 이쪽 사람과 강 건너 저쪽 사람이 만나는 교류의 장소이며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듯싶다. 다리를 천천히 거닐며 아치를 통해 보이는 풍경이 그대로 액자 속의 그림이다. 추운 밤공기를 잊고 다리를 오가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자동차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 걸어서 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는지 잠시 생각하며 아치아래 벽돌에 걸터 앉아보았다. 이곳의 또 하나의 다리는 Si-o-se-pol다리이다.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 안전하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나선 이스파한의 거리, 낮선 낯새와 함께 본 시오 세 폴 다리는 카주다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이다. 시오 세 폴 다리는 33개의 아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아한 야경이 아름답다.



si-o-seh pol 다리

Day 5 : 이맘광장이 있는 이스파한

(Masjed-e Juma Mosque, Chel sotun 궁전, Vank 성당, Imam광장, Ali Qapou 궁전, Sheik Lotfla 사원, Hasht Behesht 궁전,)

새벽 자동차 소리에 깬 이스파한은 차가 너무 많다. 기아의 프라이드 같은 차는 그나마 새 차로 보일 정도로 낡은 자동차물결과 정제술이 부족한 탓에 나오는 매연은 심각해 보였다. 아침을 먹자마자 자동차 무리를 뚫고 간 곳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저메 모스크 (Masjed-e Juma Mosque)였다. 이스파한에 있는 모스크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고 한다. 8세기에 처음 건립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으나 현재의 모습은 11세기 셀주크투르크 시대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한때는 심하게 훼손되었



저메 모스크



저메 모스크

으나 지금은 모두 복구되어 웅장하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창건 뒤 1000년의 기간 동안 중, 개축을 되풀이 하면서 다양한 시대의 건축양식이 혼합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교의 교회로 세워졌으나 이슬람 사원으로 개축되기도 하고, 몽골의 영향으로 몽골양식인 겐(gei)모양의 아치가 추가되기도 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역의 사원 설계의 프로토타입이 되었다고 한다. 가이드가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목을 주의 하란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으나, 엄청난 규모의 천정을 올려다보며 걷다보니 한없이 펼쳐지는 조적식 건축물의 다양성에 압도되어 한숨을 팔 수가 없었다. 당연히 목은 고생을 했다. 한 땀 한 땀 쌓아올려 만든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아치들. 인간은 위대하다.

이맘광장으로 가기 전에 들른 체헬 쏘툰 궁전(Chel sotun 궁전)은 40개의 기둥이라는 뜻을 가졌다. 실제로는 20개의 기둥이나 궁전 앞에 있는 연못에 비치는 기둥까지 포함하여 40개라 한다. 기둥들은 이제껏 봐왔던 거와는 다르게 가늘고 긴 목재 기둥들이었다. 어느 나라 영향을 받은 것인지 상식이 부족하니 알 수 없었지만, 이곳 문화와는 다른 이색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이 기둥아래 테라스에서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외국 사진들이 오면 환영 행사를 하였다고 한다. 궁의 내부는 1978년에 박물관으로 단장되어 도자기, 의복,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우리 눈을 끈 것은 벽과



체헬 쏘툰 궁전



체헬 쏘툰 궁전 내부

천장을 장식한 다양한 유리공예였다. 타일로 섬세하게 장식을 했던 거 그대로 유리로 장식을 한 벽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궁전 내부의 벽화는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어떤 그림은 잔인한 장면들도 있었다. 벽화 그림에 압도되어 궁전 밖으로 나오니 정원의 공기가 신선했다.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궁전이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갔다.

이슬람 국가 안에 성당을 발견했다. 중동 풍이 가미된 기독교 성당인 반크성당(Vank 성당)이다. 사파위 왕조 시대에 손재주가 특

별한 아르메니아인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성당을 지은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교회 내부에는 이란풍의 모자이크 재단이 있고, 예배당 안의 둥근 천정과 벽에는 바벨탑, 노아의 방주, 최후의 심판 같은 성경 내용의 그림으로 가득했다. 이 그림들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아르메니아 화가들이 직접 그렸는데 황금을 이용하여 그려서 더 없이 화려하며 독특한 느낌이다. 유럽의 성당과는 다르게 좀 더 진한 느낌의 성당이랄까? 성당 옆에는 아르메니아 교회 박물관이 있다. 수 백년 된 손으로 직접 쓴 아르메니아 성경들이 각각 크기별로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책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돋보기가 그 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성경책의 글자를 볼 수 있었다.



반크성당



반크성당 내부

세계에서 천안문 다음으로 큰 이맘 광장(Imam 광장)은 동서 길이 160m, 남북 길이 510m로 각종 행사나 폴로 경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사면은 2층의 아케이드로 되어있는데, 아케이드 모든 칸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광장이 단순한 유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업을 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의 역할까지 그 옛날에 수행했다니 놀랍다. 아케이드를 따라 상점을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이란의 물건을 구경하고 흥정하는 재미가 좋았다. 카페 만드는 공방에서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아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체스판을 살피다가 기어이 한 가지를 골랐다. 우리나라 돈 5000원에 램프와 실크 식탁보는 10만원에 흥정 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말을 타고 이맘 광장을 반 바퀴 돌았다. 나라가 크면 건축의 스케일도 커지나 보다. 정말 넓은 광장이다.



이맘광장

광장 서쪽에 있는 알리카푸 궁전(Ali Qapou 궁전)은 6층, 높이 38m로 17세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한다. 18개의 목조기둥의 4층 테라스에 서니 이맘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 테라스에서 왕들은 폴로경기를 구경하고 유희를 즐겼다고 한다. 4층에서 2개 층 더 올라가면 음악 감상실이 나오는데 이란의 전통악기 문양



알리카푸 궁전

으로 만든 천장은 음악을 풍성하게 감상하도록 하는 기능과 더불어 아름다움마저 사랑하고 있었다.

알리카푸 궁전 맞은 편에 셰이크 로플라 모스크(Sheik Lotfla 사원)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 중 하나라고 하는 이 모스크는 왕의 여인들을 위한 작은 모스크로 얇은 파란 타일 때문에 푸른 빛을 띠는데 햇빛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며 매 시간 다른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이곳은 왕과 왕의 여자들만을 위한 기도 장소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만들어져 미나렛도 없고 사면으로 회랑도 없지만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서면 환상적인 푸른색 타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둥근 돔



셰이크 로플라 모스크



셰이크 로플라 모스크 내부

의 기도하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커다란 원형 돔의 지붕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모스크 중 정말 으뜸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돔의 내부도 외부처럼 푸른색 타일과 크림색 타일로 형형색색 장식되었는데, 돔 하부 측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은 햇빛의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화려한 자연 조명을 보여주었다. 구름에 해가 가렸을 때, 그러다 다시 나타나는 햇빛으로 내부는 밝기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건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내내 하늘이 주는 음성을 들을 거 같다는, 신의 계시를 받는 거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맘 광장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이맘 모스크(Imam Mosque)는 1612-1630년에 세워졌는데, 4개의 미나렛과 높이 47m의 거대한 양파모양의 돔을 가진 엄청난 크기의 모스크이다. 돔 가운데는 색깔 없는 단색 타일로 모자이크 장식을 해 놓았고, 그 아래에 코란 문구



이맘 모스크 전경



이맘 모스크

를 채색 타일로 새겨 넣었다. 모스크 한쪽에 이란 최고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타일을 정교하게 다듬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푸른색계열의 화려한 타일로 만들어진 모스크와 다른 남성적이면서도 웅장한 매력을 느끼며 모스크 중정에 햇빛이 드는 곳에 사람들과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이스파한, 오늘 보아 온 많은 종류의 유산들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충분히 감동하며 봐도 봐도 끝없을 듯 많은 보물을 가진 이 도시가 새삼 부러웠다. 그러나 지금의 이란은 수십 년 전의 근대화를 시작하다 그만 정지되어 버린 곳이다. 세계 천연자원 1위, 석유매장량 4위, 그리고 이 많고 많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돌아가면 이란어를 공부해야 하나? 무궁무진 가능성의 이 나라가 내 눈에는 중국보다 더 귀한 무역대상국이 될 듯이 보였다.

Day 6 : 테헤란으로 올라가는 길

(#저메 모스크, 야비야네 빌리지, 타바타바이 저택)

나라가 정말 크다. 이 날은 하루 종일 버스 탄 기억만 있다. 테헤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곳을 들렀을 뿐 계속되는 버스이동이었다.

아침을 먹고 출발하여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의 아주 작은 나탄즈 저메 모스크. 가이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한다. 이제까지 봐 왔던 모스크하고는 양식이 달라 보이나 기본 푸른 빛의 타일과 돔은 유사하다. 그러나 크

기가 현저히 작은 모스크이다. 작은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니 돔 아래, 높은 측창에서 떨어지는 빛이 현란하다. 자연 조명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작은 공간에서 울리는 기도의 소리가 빛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듯하다. 참 예쁜 모스크다. 시골 길 돌담 위에 앉아 따뜻한 차와 비스킷을 먹은 기억이 새삼 좋다.



나탄즈 저메 모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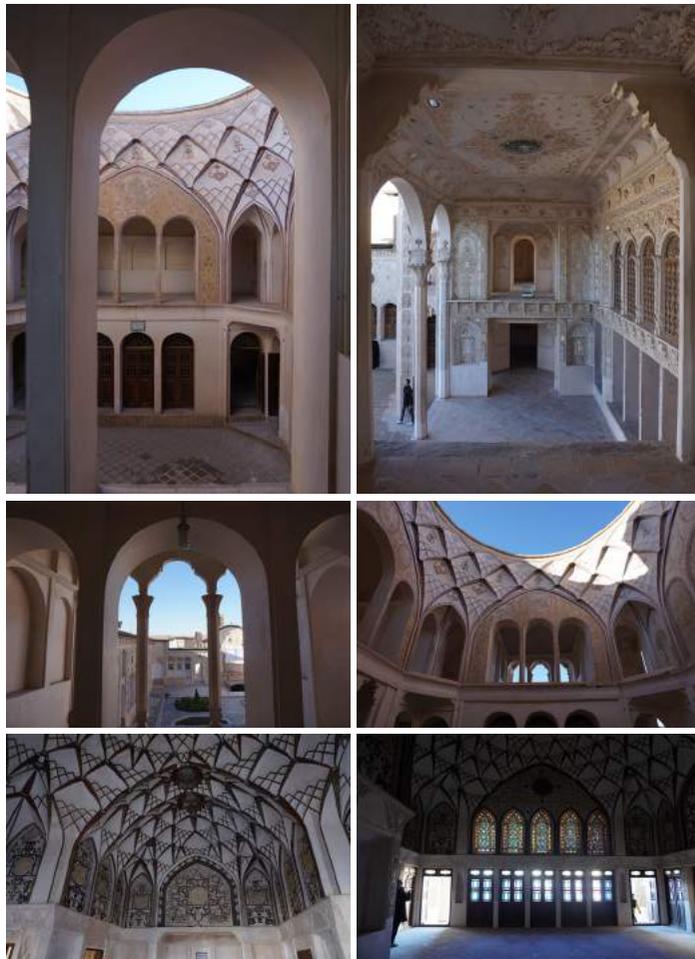
나탄즈 저메 모스크 내부

점심 즈음에 도착한 야비야네 빌리지(Abyaneh)는 14세기에 형성된 마을로 부서질 것 같은 나무 발코니와 황토색의 흙집, 구불구불



한 좁은 길을 따라 도로 사이 사이에 눈 쌓인 산을 전경으로 가진 다소 높은 지대의 마을이었다. 이곳은 여름에는 서늘하고 다른 계절은 매서울 정도로 추워서 현재는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농경지가 아니라 돌 바위위에 세워진 집들은 어떤 집의 경우는 아래 집 지붕이 그 집의 정원이 되는 요즘 유행하는 테라스 하우스 같은 곳도 있었다. 몽골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구릉에 지어진 진흙벽돌 집들이 어떻게 긴 시간동안 유지되었는지 신기하였다. 현재 이곳은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마련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으로 나오는 이란의 전통 음식은 10여 시간 몽글하게 끓여 낸 야채수프 종류였는데, 고산지대 천연의 땅에서 나온 야채라 생각하며 그릇을 비웠다. 맛은 그냥 그랬다. 몸에 좋은 음식이 뭐 그렇지 하면서, 아이들은 같이 오신 분들이 가져온 고추장과 참기름을 이란의 쌀밥과 야채를 넣어 맛있게 비벼 먹는다. 집에서선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여행은 이런 체험도 가능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하다.

테헤란을 몇 시간 남겨 놓고 들른 카산 지역의 타바타바이 (Tabatabai House) 개인 저택은 부유한 카펫상인의 집으로 1834년에 지어졌는데, 방은 40여개가 넘고 문도 200여개가 넘는 궁전 못지않게 큰 저택이었다. 당시 상인들이 얼마만큼 부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갔다. 중정의 중앙에 정방형의 수영장 스타일의 연못이 있고 돌 위에 새겨진 정밀하고 뚜렷한 디자인과 정교한 치장벽토세공, 화려한 거울과 색이 입혀진 유리작품으로 유명하다 하여 구석 구석 둘러 보니 궁전이나 모스크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섬세한 아



타바타바이 주택 내부



타바타바이 주택

름다움이 돋보였다. 아무래도 개인 주거는 안주인의 아기자기한 성향도 반영하는 듯이 휴먼 스케일의 건축적 따뜻함이 있었다. 그 옛날의 영화를 뒤로하고 이들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한때 대부호였을 그 조상들은 후대에 자신의 집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거라고 상상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일듯 싶다. 같은 마을에 브로디자디 저택은 사정상 방문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수공예품을 팔던 부자 상인의 집으로 석공, 화가, 유리 세공업자, 조각가 등 150여 명의 각 분야의 건축 기술자를 동원하여 18년 만에 완성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해 아쉬웠다. 언제 이 여정을 다시 밟아 올 수 있을까?

Day 7 : 복잡한 테헤란
(국립박물관, 골레스탄 궁전, 사드 아바드 궁)

역시 수도답게 복잡했다. 어제 늦게 도착한 테헤란은 퇴근 무렵이라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차가 많은데 질서도 없었다. 호텔로 들어가는 길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교통순경 아저씨에게 얘기해서 좌회전을 감행하는 우리 가이드. 아직 이란은 이상한 융통성이 통하는 나라이지 싶어 재미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선 이란의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Iran)은 1937년에 건설된 벽돌건물과 1972년에 지어 현대적인 하얀 석회질로 마감된 국립미술관 두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기존 벽돌 건물은 프랑스 건축사 앙드레 고다드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건축면적이 11000㎡ 크기에 한 층에 고고학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모든 발굴 보물들을 보관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새로운 건축 계획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면 파사드의 조적이 인상적인 박물관은 프랑스의 건축사가 이란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 했는지 보여져 좋았다.



국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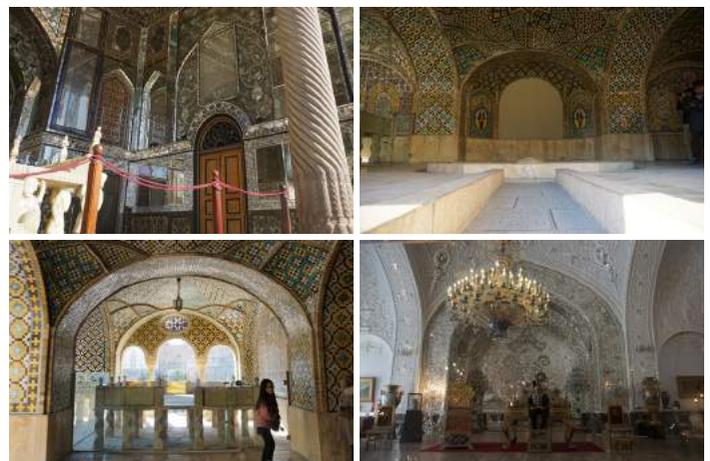


국립박물관 전시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골레스탄 궁(Golestan Palace)은 테헤란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성이라고 한다. 골레스탄 궁은 이란 전통가옥의 설계와 비슷하여 내실과 외실로 나누어져 외실에는 집무실, 마당, 사무실, 사각형의 정원이 있고 정원은 내실과 외실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연결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내실에는 큰 마당이 있고 왕의 여인들과 왕의 침실이 있었다고 한다. 입구에 준비된 덧신을 신고 내부로 들어가니 온통 유리로 장식된 벽과 천정이 눈부시다. 이쯤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감탄도 무뎠어지는 듯 싶으나, 또 다시 만나는 다채로운 건축 경험은 여전히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무리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골레스탄 궁전



골레스탄 궁전 내부



공을 들인다 해도 이처럼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 주변에 벽들이 모두 타일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하나도 같은 게 없는 타일 벽에 기대어 사진을 찍으니 사람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 너무 화려한 배경은 배경자체로 돋보이는 듯하다. 하긴 궁전 내부에 있었던 수많은 귀중한 유산들이 건축의 화려함 속에서 빛나 보이지 않은 거랑 비슷한 효과일거라 여겨졌다.



이란의 아파트들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가 또한 이란이라는 나라라고 한다. 악기 박물관이 위치한 동네는 값비싼 빌라들이 들어선 곳이다. 다양한 고층 빌라군들은 우리건축법과 달라서 그런지 나홀로 아파트이면서 외관은 고급주택의 형태를 보여줬다. 10층 전후의 아파트들은 형태가 다양하여서 각기 개성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대 전후라 하니 이란 물가로는 엄청난 가격이라고 한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악기 박물관



악기 박물관

것이 눈에 띄었다. 악기 박물관에서는 같이 동행한 박물관 팀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전통 악기 연주도 들을 수 있었고 차와 다과도 대접받았다. 박물관 내부는 중앙에 계단이 있고 시각적으로 연결된 수직의 라인이 천정의 빛의 돔 모양의 공간까지 이어졌는데 음악적 영감을 시각화 한 듯 하다. 내부에는 각종 희귀한 고전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드 아바드 궁(The Saadabad Palace)은 테헤란의 Shemiran 지역에 이란의 팔라비 왕조에 의해 지어진 궁전이며 공식적인 이란 대통령의 거처인 곳이다. 이곳은 110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역사문화복합단지로서 현재는 이들 중 일부를 박물관으로 개방하여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하게 이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 관광객들이 많았다. 부패와 사치, 굴욕적인 외교로 단 2명의 황제로 끝난 팔라비 왕조에 대해 역사적 시각은 극단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들른 곳은 화이트 팰리스였다. 2대왕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왕비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한 방



사드 아바드 궁내 화이트 팰리스 내부



사드 아바드 궁 정원

들을 유리 너머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었다. 각 집견실 마다 화려한 카펫과 가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이란 풍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어느 곳에 와 있는 느낌도 다소 들었다. 화이트 팰리스를 나오니 오른쪽에 장화부분만 있는 동상이 있었다. 이슬람 혁명 때에 성난 군중에 의해 몸통은 박살이 나고 장화부분만 남아있는데 당시의 민중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이곳은 18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9개 정도만 개방한다고 한다. 개방하는 곳을 다 돌아보려면 하루는 족히 걸릴 듯 싶은데, 우리는 달랑 화이트 팰리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돌아보지 못했다. 단체여행의 한계다. 대신 천천히 공기 좋은 외부를 산책했다. 공기가 얼마나 상큼한지 테헤란 시내와 이곳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났다.

이날은 이란의 마지막 날이었고, 저녁은 이란 최고의 양고기 바베큐 요리였다. 양고기에 대한 선입관이 있고 이제껏 먹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특별소스로 자연에서 풀 먹고 자란 양고기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집이라고 한다. 양고기도 사료를 먹고 자란 것은 냄새가 나는데 자연에서 자란 양은

노린내도 없고 맛나다고 한다. 양고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마저도 이 날은 신나게 먹어주었다.



양고기 바베큐

하루를 테헤란에서 자고 아침 일찍 도하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란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말했다. 여행 중에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여행은 처음이었다고. 많이 견고 술 안마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여행이었다고. 그리고 보니 어디를 가나 술이 없는 곳이 이란이다. 술이 없는 나라, 이란. 팔라비 왕조가 망하고 이슬람 혁명 이후 코란에 충실한 종교적인 나라. 술 문화, 밤 문화가 없는 탓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장금'과 '주몽', '해신'의 드라마 시청률이 80-90%를 넘긴 기록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시내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왔냐고 묻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누구나 대장금과 주몽을 한국 발음으로 얘기했었다. 1977년 서울과 테헤란은 자매 결연을 하고 각기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뒀는데, 지금 서울의 테헤란의 가치와 테헤란의 서울로의 가치는 너무나 다르다. 서울로는 1977년 상태로 얼어있다. 미국과 핵협상을 체결한 이곳 얼어붙은 겨울왕국에 이제는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여행을 기획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공순구 교수님과 이한용 박물관 팀장님, 함께한 30여명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설계·감리기업의 사회적 책무(責務)

Social Obligation of the Design/CM Company

글. 양영호_KIRA | Yang, Young-ho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15년 2월 24일은 필자 회사의 창립40주년 기념일이었다. 건축 부문의 설계, 감리업체로서 창업 후 40년 이상을 존속하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업체들 중에는 갖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창업자가 바뀌거나 업무형태를 변경하여 어렵게 법인으로서의 구색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창업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건축사사무소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며 이어가는 개인사업자도 허다한 것이 설계, 감리업계의 현주소다. 사업 환경이 워낙 척박하고 영세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이든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도 필자 회사처럼 창업자가 40년을 스스로, 회사이름 그대로,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500명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서도 건실한 재무구조와 신용도를 지켜오고 있는 기업다운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필자 오너는 40주년 기념식사(式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바퀴의 페달을 쉬지 않고 밟으며 수레(회사)를 지켜오다 보니 40년이 흘렀다”고 회고했다. 그저 주어진 천직으로 알고서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는 소박한 몸부림으로 지난 세월을 치부하면서 스스로를 미생(未生)으로 평가절하 시켰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사람나이가 40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지난 40년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개척한 변화와 도전의 역사다.

회사라는 조직은 본래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이익사회)이어야 하지 조직 구성원간에 가족이나 친족 등 애정을 기초로 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공동사회)가 되어서는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F. 퇴니에스의 사회조직개념론) 게젤샤프트는 수장(首長-Leader)이 중심에 서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이익추구의 성과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다. 리더를 정점으로 조직과 업무체계가 종적 하향식(Top down)이어야 보다 효율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회장은 새해가 되면 장단기계획을 바탕으로 그 해 경영목표를 매출 ○억/영업이익○억의 숫자로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세계1위 IT기업, 세계5대 자동차회사의 비전까지 하향식으로 공표한다. 삼우, 희림 같은 대형 건축사사무소도 세계○위/ ENR평가 ○위 등 비

전의 구체적 제시 방식은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선 목표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페달을 밟아댄다.

조직 구성원간에 가족적 공동체사회개념인 게마인샤프트는 그 결합과 조직체계가 정서적 일체감을 갖추고 조직구성원 전체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은 의미 없는 일이다. 필자 회사는 40주년을 앞두고 사장과 참모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비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상당한 고민과 준비를 해왔다. 다른 해와는 달리 설계,CM부문 모두 수주목표와 매출목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4가지 비전을 본사가 나아갈 방향으로 공표하였다. 종래의 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다.

첫째, 본사가 지향하는 방향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다.

둘째, 모범적인 조력자로서 고객만족의 실천을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셋째, 우리 모두가 일하기 좋은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데 동참하자.

넷째, 감사나누기로 겸손과 관용을 베푸는 「행복나눔 125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자.

4가지의 주제만 붙잡고 있으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의 방향 제시가 아니라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와 갈수록 어두워지는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500명이상(그 가족까지 2000명 이상)을 태우고 온갖 난관을 돌파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창업40주년이 되는 변곡점에 서서 제시한 이 어울리지 않는 비전 4가지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쉽게 납득이 안되고 혼란스럽다.

필자 회사의 교양강좌 실천노트 - 「행복나눔 감사노트」

필자는 지난해 12월초, 회사가 연두색 표지로 이쁘게 장식한 「행복나눔 감사노트」를 제작하여 직원모두에게 배포한 의도를 꼼꼼히 유추해 보면서 4가지 비전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다.

첫째, 본사는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를 지향한다.

- 1) 공헌의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기부(Donation)다.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사업관리하여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이자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 2)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면 기부도 공헌도 할 수 없다.
- 3) 업무수행에 성실성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기부능력 고객에게 손해까지 끼치고 사회에 불량건축물만 남긴다.
- 4) 나의 처신에 따라 고객과 사회에 기부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둘째, 모범적인 조력자로서 고객만족의 실천을 핵심가치로 설정한다.

- 1) 고객의 만족가치를 10%로 가정하면 「설계비10억 프로젝트」는 1억원, 「CM비 20억 프로젝트」는 2억원이 기부(공헌)가치 최고액으로 환산된다.
※ 만족가치 10%산출근거 : 용역입찰예정가는 용역소요원가에 고객의 만족가치까지 포함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계약금액은 입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예정가보다 20%이상 낮게 책정된다. 이는 고객의 만족가치를 제외시킨 용역실소요원가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역자가 원가인 계약금액 중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만족가치 10%는 타당성이 충분하며, 기부금액으로 환산함에 부족함이 없다.
- 2) 용역수행팀이 프로젝트별로 5인이라면 설계참여자인 나는 최대 2천만원을, CM참여자인 경우 최대 4천만원을 현금으로 기부(공헌)함과 같다. 적어도 5년 이후 나는 Honor's club에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 나도 명예로운 기부자(공헌자)의 반열에 들어간다.
- 3)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면 기부액은 제로가 된다. 언제나 주지는 못하고 받기만하는 사람으로 남으며 사회에도 짐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 4) 만일 업무수행에 성실성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마이너스기부 즉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용역수행팀 동료들의 기부금액까지 잠식하게 된다. 빛진 인생이다.

셋째, 우리 모두가 일하기 좋은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데 동참하자.

- 1) 조직구성원 전체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가족적 공동체인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조직으로 승화시키는데 동참하자.
- 2) 상하, 좌우로 소통을 강화하여 상향식 조직체계(Bottom up)로 회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자.
- 3) 행복하면 즐겁다. 일하기 좋은 단계를 넘으면 일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진다. 설계하고 감리하는 일이 즐거운 직장, 그러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진다. (게마인샤프트의 행복추구 목적 달성)

넷째, 감사나누기로 겸손과 관용을 베푸는 「행복나눔 125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자.

- 1) 선행, 적덕, 겸손, 관용. 모든 단어의 의미함이 내가 접근하기엔 부끄러운 테마다.
- 2)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밥값도 못하고, 빈둥대고만 있는 미생(未生)이다.

- 3) 미안하고 송구한 나머지 「행복나눔 감사노트」에 감사든 아니든 무엇이랴도 쓰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 설계/감리용역 수주에 열심인 수주전략팀, 기술직 동지들
감사합니다 - 설계/감리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현장의 동지들
감사합니다 -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건축주님, 발주자님
감사합니다 - 용역수행을 도와주는 감독님, 시공자 제위님, 협력사 제위님
감사합니다 -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동지들 가족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 부족한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사장님, 회장님

감사노트를 일기장처럼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감사의 소재감도 안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쓰다보면 양심에 부끄러운 반성문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조직에 미안한 나머지 아부성 잡 글로 흐르기도 한다. 내용이 하찮은 것이라도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순간 글자들은 자연히 대뇌에 한자 한자 입력이 된다. 입력된 편린들은 사고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며 정리된 사고의 일부는 행동으로 전이(轉移)된다. 전이된 행동은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변화에 익숙해지면 혁신(革新)과 도전(挑戰)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글쓰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가발전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노트」 쓰기의 발전소는 에너지불변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작동시킨다. 「감사하자 → 보답해야겠다 →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자 → 변화하자 → 도전하자 → 혁신하자 → 감사하자 ----→ 」우리 530명 각자가 쓰는 「감사노트」는 지식, 정보, 감정을 나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조직간 소통의 도구가 된다. 하-----!, 「행복나눔 감사노트」가 이런 역학관계를 성립시키는구나. 「감사-변화의 연속방정식」을 도출시킨다.

「감사-변화의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40주년 기념식장에서 필자 회사가 던진 4가지 비전(메시지)을 이 미생(未生)은 이렇게 요약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감사노트에 적어 두었다.

- 1) 이제부터는 Leader가 경영목표를 세우고 혼자서만 수레의 페달을 밟지 않겠다.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같이 가자.
- 2)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멈추고 있음은 퇴보다. 바로 조직의 낙오자로 떨어지는 것이다.
- 3)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퇴출시킨다.
- 4) 일하기 좋은 회사는 회장이나 사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100년 회사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신작로(新作路)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창업40주년 기념식장에서 필자 회사가 던진 메시지를 읽으며, 기업과 기술자의 사회적 책무(責務)가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이사회 개최 현황

□ 제3회 이사회

2015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5일(금) 오후2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15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부회장 선임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 : 2015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 2015년도 위원회 조직 및 담당업무를 확정하고 위원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함.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사를 조화한 후 회장이 선임.
- 제2호 : 부회장 선임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부회장 3인 외에 1인은 특별 명칭을 사용
- 제3호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15년 4월부터 세 번째 수요일 15시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함.
- 총무이사는 한재희 이사를 선임함.

2015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본협회 17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2일 경상남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돼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 주요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26(목) 14시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참석인원 : 재적회원 2,409명 중 856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회계별 결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석정훈 회원(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임영석 회원(엑츠 건축사사무소.주)

- 이사 선출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제4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키로 승인함.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25(수) 15시

▷개최장소 : 농심호텔 별관 허심청 2층 대청홀

▷참석인원 : 재적회원 806명 중 652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FY-2014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FY-2014 결산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FY-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이만희 회원(주.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노상철 회원(주.기반 건축사사무소)
- 이사 7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제5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19(목) 15시

▷개최장소 :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 지하1층 그랜드볼룸

▷참석인원 : 재적회원 723명 중 622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회계연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회계연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1인 : 최혁준 회원(건축사사무소 이데아21)
- 감사 1인 : 박병희 회원(예맥 건축사사무소)
- 이사 9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 대의원 20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함.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개최일시 : 3.25(수) 15시

▷ 개최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86명 중 321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회계연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도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윤희경 회원(주.삼희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조항진 회원(주.광장 건축사사무소)
- 이사 4인 : 류재경, 손도문, 신중식, 최복규 회원
- 대의원 8인 : 박순종, 최성열, 최영희 회원, 5인(신임회장에게 위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13(금) 10시 5분

▷ 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14명 중 269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 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정명철 회원(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강석훈 회원(건축사사무소 선명)
- 이사 5인 : 김동선, 이수철, 정상채, 문강욱, 진수성 회원
- 대의원 11인 : 정명철, 안길전, 김희현, 심상봉, 박상구, 윤양현, 정태호, 장동원, 최보은, 정인채, 조휴환 회원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18(수) 14시

▷ 개최장소 : 오페라웨딩 3층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55명 중 297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일반 및 건축사교육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건축사교육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수정안 승인

- 세입예산에서 월정회비 인상액 일만원 감액 편성(약 40,000천원)
-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을 각 항·목에서 계수 조정하여 편성(단, 감액된 금액은 기타 잉여금에서 사용)

· 제4호의안 : 회칙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김재범 회원(쿠파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이주엽 회원(다인 건축사사무소)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24(화) 16시

▷ 개최장소 : 울산MBC컨벤션 2층 아모레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45명 중 220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축문화발전기금운용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4년도 건축구조계산업무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4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울산광역시건축사회관 설립추진위원회 신설의 건
- 위원선출을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여 위원회를 발족키로 함.
- 제7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손진락 회원(주.화성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박현탁 회원(가람 건축사사무소)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 개최일시 : 3.27(금) 11시

▷ 개최장소 : 세종문화원 소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8명 중 40명 참석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이사 7인 : 김순공(회장), 박진만(부회장), 박재철, 전응구, 구본길, 김승태, 박금철 회원
- 감사 2인 : 유병일(주.건축사사무소 세종), 박인희(주.종합건축사사무소 터전) 회원
- 대의원 3인 : 성부경, 홍재학, 오석준 회원
- 제4호의안 : 운영규정 개정(안)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경기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25(목) 10시
- ▷ 개최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257명 중 796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5호의안 : 임원개선의 건
 - 감사 1인 : 김현인 회원(plus가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사 14인 : 회장에게 위임

□ 강원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27(금) 11시
- ▷ 개최장소 : 원주호텔 인터볼고 컨벤션 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49명 중 211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1인 : 후보사퇴

- 감사 1인 : 설태영 회원(건축사사무소 흙)
- 대의원 8인 : 김종오, 주명호, 강홍구, 이호준, 박병진, 김보규, 김은태, 서강선 회원

□ 충청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17(화) 10시 30분
- ▷ 개최장소 :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29명 중 263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김성진 회원(도담 종합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정운기 회원(ANA 건축사사무소)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충청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26(목) 10시 30분
- ▷ 개최장소 : 충남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66명 중 231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감리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의안
 - 기타 안건 없음

□ 전라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19(목) 15시 30분
- ▷ 개최장소 :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
- ▷ 참석인원 : 유효재적회원 327명 중 120명 참석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임원 및 대의원 선임 결과(2014년도 임시총회에서 회장당선자에게 위임하여 선임한 결과임.)

- 이사 8명 : 김남중(직전회장), 이두필(유임), 김경태(신임), 김유천(신임), 이태원(유임), 이성열(신임), 김은선(유임), 강정용(신임) 회원
- 대의원 10인 : 전병갑(당연직), 김남중(의무직), 박현우(신임), 이길환(유임), 이두필(유임), 이성수(신임), 이성열(유임), 이성엽(유임), 정용균(신임), 최진호(신임)

□ 전라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16(월) 13시 30분

▷개최장소 : 에코그라드호텔

▷참석인원 : 재적회원 259명 중 191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박용목 회원(다산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정운기 회원(고려적산 건축사사무소)
- 이사 2인 : 김정, 김성춘 회원
- 제5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 6인 : 국원식, 한형민, 서계원, 윤순하, 장춘기, 이원경 회원

□ 경상북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13(금) 11시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참석인원 : 재적회원 527명 중 498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지역건축사회 포함) 개선의 건
- 회장 1인 : 이재효 회원(건축사사무소 공간)
- 감사 1인 : 이동만 회원(에이스 건축사사무소)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 경상남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12(목) 13시

▷개최장소 : 경상남도청 대강당

▷참석인원 : 재적회원 598명 중 556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4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4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5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조용범 회원(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감사 1인 : 이동철 회원(건축사사무소 모든)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개최일시 : 3.27(금) 16시

▷개최장소 : 제주 KAL호텔 2층 회의실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0명 중 134명 참석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4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1인 : 강영준 회원(강영준 건축사사무소)
- 감사 1인 : 김용식 회원(김미 건축사사무소)
- 이사 및 대의원 : 신임회장에게 위임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법제위원회

제1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3월 4일(수) 오전10시 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건축물의 구조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제2호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3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4호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 없음.
- 제5호 : 건축법 규제 내용 검토의 건
 - 건축법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 조경설치 규정 200㎡→300㎡ 이상으로 완화 필요
 - 건폐율, 용적률(법 제55조, 제56조) :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하는 규정삭제 필요
 -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80조, 영 발표 15 제1호) : 위반범위에 대해 산정하도록 개선 필요
 -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규칙 제24조 제1항) :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3일 전으로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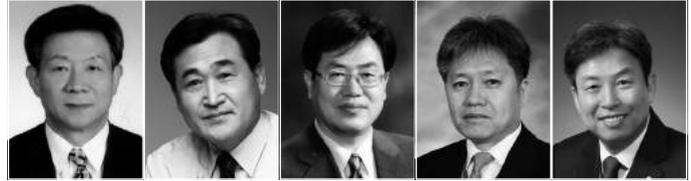
□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5일(금) 오후1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 협회 2015년 임원선거의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포함한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위원회 건의사항을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위원장이 검토한 뒤 집행부에 건의기로 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선임



이근창 명예부회장 이성우 부회장 윤혁경 부회장 전찬흥 부회장 석정훈 부회장

협회는 지난 3월 5일 조충기집행부 출범 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명예부회장 1명, 부회장 4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명예부회장은 이근창 건축사(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성우 건축사(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윤혁경 건축사(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전찬흥 건축사(아트피아전찬흥 건축사사무소), 석정훈 건축사(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시·도건축사회, 신임회장 선출



석정훈 회장(서울), 이만희 회장(부산), 최혁준 회장(대구), 윤희경 회장(인천)



정명철 회장(광주), 김재범 회장(대전), 손진락 회장(울산), 김순공 회장(세종)



황정복 회장(경기), 김성진 회장(충북), 박정준 회장(충남), 전병갑 회장(전북)

-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건축물의 구조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제2호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3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개정안에 이견 없음.
- 제4호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 없음.
- 제5호 : 건축법 규제 내용 검토의 건
 - 건축법 규제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기로 함.
 -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 조경설치 규정 200㎡→300㎡ 이상으로 완화 필요
 - 건폐율, 용적률(법 제55조, 제56조) :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하는 규정삭제 필요
 -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80조, 영 발표 15 제1호) : 위반범위에 대해 산정하도록 개선 필요
 -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규칙 제24조 제1항) :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3일 전으로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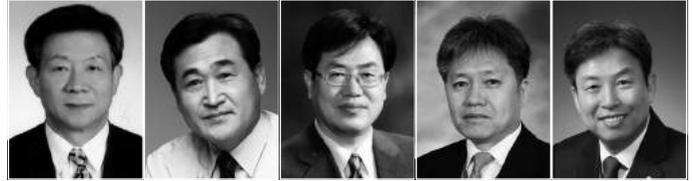
□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5일(금) 오후1시 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 선거사무 종료의 건
 - 협회 2015년 임원선거의 선거사무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포함한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위원회 건의사항을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위원장이 검토한 뒤 집행부에 건의기로 함.

건축계 소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선임



이근창 명예부회장 이성우 부회장 윤혁경 부회장 전찬흥 부회장 석정훈 부회장

협회는 지난 3월 5일 조총기집행부 출범 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명예부회장 1명, 부회장 4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명예부회장은 이근창 건축사(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성우 건축사(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윤혁경 건축사(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전찬흥 건축사(아트피아전찬흥 건축사사무소), 석정훈 건축사(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시도건축사회, 신임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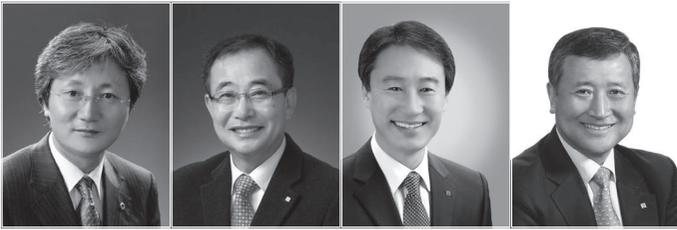
석정훈 회장(서울), 이만희 회장(부산), 최혁준 회장(대구), 윤희경 회장(인천)



정명철 회장(광주), 김재범 회장(대전), 손진락 회장(울산), 김순공 회장(세종)



황정복 회장(경기), 김성진 회장(충북), 박정준 회장(충남), 전병갑 회장(전북)



박용묵 회장(전남) 이재호 회장(경북) 조용범 회장(경남) 강영준 회장(제주)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강원도건축사회는 회장 재선출관계로 누락)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는 3월 한 달 동안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시도건축사회 회장은 총 12명이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3월 12일 조용범 건축사(경남·건축사사무소 범건축) ▲3월 13일 정명철 건축사(광주·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와 이재호 건축사(경북·건축사사무소 공간) ▲3월 16일 박용묵 건축사(전남·다산 건축사사무소) ▲3월 17일 김성진 건축사(충북·도담종합건축사사무소) ▲3월 18일 김재범 건축사(대전·쿠파 건축사사무소) ▲3월 19일 최혁준 건축사(대구·건축사사무소 이데아21) ▲3월 24일 손진락 건축사(울산·(주)화성 건축사사무소) ▲3월 25일 이만희 건축사(부산·(주)서강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윤희경 건축사(인천·(주)삼희 건축사사무소) ▲3월 26일 석정훈 건축사(서울·(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3월 27일 강영준 건축사(제주·강영준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총회에서 선출돼 3년간 시도건축사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한편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미리 선출한 경기도건축사회(회장 황정복)와 전북건축사회(회장 전병갑), 충남건축사회(회장 박정준)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올 초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회장 김순공)는 별도 회장선거가 없었다.

한편 3월 27일 열린 강원도건축사회 총회에서는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4월 24일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익산건축사회, 익산시와 간담회 가져

익산지역건축사회는 3월 25일 모현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익산지역 건축사 회원과 익산시 건축 관련 공무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지역건축사회 안영묵 회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회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익산시에 건의했다. 익산시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개정 또는 폐지를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kaa.kita.or.kr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5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의 분할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역을 이어가고 있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준공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5년 3월 2일 ~ 6월 5일
계획건축물부문 참가신청 2015년 5월 26일 ~ 5월 29일
*차별안 공모는 내용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_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_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_ N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작품을 공모한다.

2015한국건축문화대상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부문’과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참가신청은 준공건축물부문은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작품접수는 준공건축물부문 6월

8~9일, 계획건축물부문은 6월 2~3일 양일간이다. 준공건축물부문은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거부문', '일반주거부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본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대통령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본상 수상작 4개 작품에는 국무총리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우수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상이 수여된다. 계획건축물부문 작품 주제는 '해학적 창조를 통한 회복(Rejuvenation with a slight gesture)'이며, 대상 1점은 상금 500만원과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3점은 상금 20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수여된다. 또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1인을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5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나 본지 551호(2015년 3월호 103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상 그 이상의 한옥' 2015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우수성 발굴 및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이며, 준공, 계획,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출품이 가능하며, 해당 한옥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의 경우,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디자인·설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계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으며, 특히 청소년 부문은 휴대폰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접수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모일정을 2개월가량 앞당겨 공모 참여자들이 충분한 작품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품과 수상자에 대해서는 전시회 및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competition.hanokdb.kr)와 함께 별도의 작품집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유일호 국토교통부 신임장관(사진·61)은 지난 3월 16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토부 업무에 들어갔다. 유장관은 취임식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신임장관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한나라당)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게 재선되면서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2012.12~2013.2)과 새누리당 대변인,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5년 4월초

시도	정회원 현황		정회원 사무소 현황												사무소 없음	사무소 합계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정회원 수	비율	1인	2인	3인 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소 계				
서울	2,421	25.5%	976	18	0	994	921	111	34	15	11	1,092	35	2,121		
부산	813	8.6%	570	6	2	578	139	25	6	2	1	173	4	755		
대구	739	7.8%	564	13	5	582	73	12	5	2	1	93	9	684		
인천	394	4.1%	303	2	0	305	61	7	1	0	0	69	9	383		
광주	320	3.4%	233	1	0	234	56	5	1	2	1	65	3	302		
대전	359	3.8%	269	5	0	274	38	6	3	1	1	49	3	326		
울산	246	2.6%	208	4	0	212	19	3	0	1	0	23	1	236		
세종	58	0.6%	32	0	0	32	18	4	0	0	0	22	0	54		
경기	1,295	13.6%	931	2	0	933	275	14	4	2	1	296	25	1,254		
강원	253	2.7%	209	2	0	211	31	2	0	1	0	34	1	246		
충북	330	3.5%	248	2	0	250	49	3	2	2	1	57	1	308		
충남	366	3.8%	293	2	0	295	53	6	0	1	0	60	0	355		
전북	335	3.5%	281	4	0	285	31	6	0	0	0	37	3	325		
전남	262	2.8%	221	0	0	221	33	2	0	0	0	35	4	260		
경북	537	5.6%	468	5	1	474	42	5	0	0	0	47	4	525		
경남	598	6.3%	538	3	0	541	48	3	0	0	0	51	0	592		
제주	181	1.9%	147	0	0	147	25	3	0	0	0	28	3	178		
합 계	9,507	100%	6,491	69	8	6,568	1,912	217	56	29	17	2,231	105	8,904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5년 4월초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998	4,414
서울	4095	2826
부산	796	196
대구	697	125
인천	387	16
광주	316	114
대전	372	81
울산	240	61
경기	1,474	214
강원	263	32
충북	330	103
충남	336	80
전북	340	55
전남	279	103
경북	507	53
경남	613	107
제주	184	81
세종	53	24
기타	1,716	143
비고	회원 : 9,356 / 비회원 : 3,642	대학 : 4025 / 대학원 : 389